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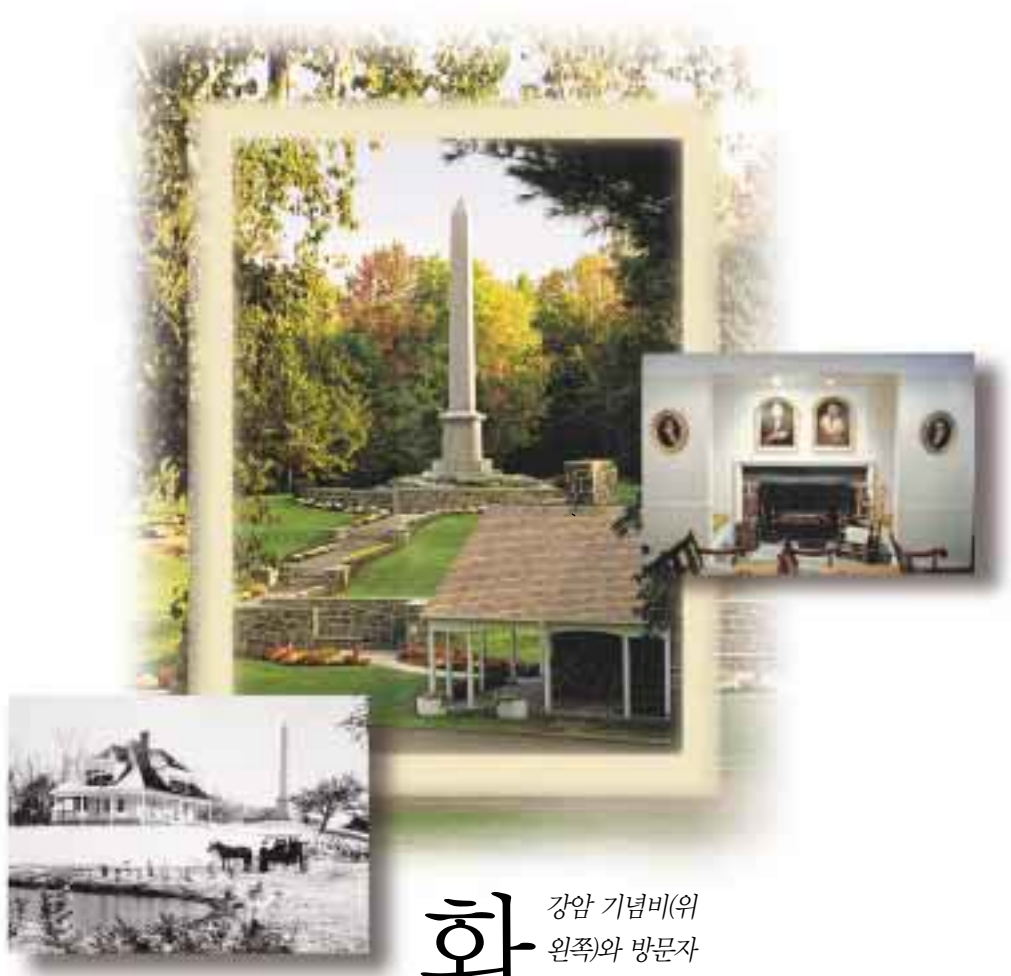
리아호나

표지 이야기:

200년 전에
태어난 조셉 스미스를
기념하며,
2, 18, 20쪽

부부 선교사: 왜 우리는
나가야 할까요?
26쪽, 친12쪽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며, 친8쪽



화

강암 기념비(위
왼쪽)와 방문자
센터(오른쪽)가

조셉 스미스의 출생지를 기념하고 있다. “시골
버몬트의 보잘것 없는 환경에서 200년 전 이 달에
태어난 이 남자 아이는 지상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의 자녀를 위한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예임되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조셉 스미스 이세-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종”,
2쪽 참조

리아호나 2005년 12월 호, 제12호
25992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희: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라셀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리,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아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몬티 제이 브라운, 케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가쿠지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비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홀나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콜러트 네베커 오온, 수잔 브렛, 셰나 버틀러, 라이언 카,
린다 스칼 쿠퍼, 라렌 포터 콘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넷, 셸리 제이 오데카크, 아담 시 울슨, 주디스
엘 팔라, 비비안 폴슨, 돈 엘 셸,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와델, 킴벌리 웹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이날드 제이 크리스티슨,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윌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슨

통 권: 제 477호, 제 42권, 제 1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5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운임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미국,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자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02-2232-1441, 교한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카보디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브리어, 헝가리어, 힌디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5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December 2005 No. 1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
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리아호나

성인

- 1 제일회장단 성탄절 메시지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조셉 스미스 이세-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종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12 복음 고전: 참된 성탄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 16 십일조에 대한 어느 가족의 간증 돈 엘 셸
- 18 선지자의 생애: 요람-버몬트 주 사론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기뻐함
- 26 노후의 삶을 축복하는 선교 사업
- 30 가족 강화: 상황에 맞게 조절함
- 32 음식 봉투와 20마르크 메이지 카야리나 마키넨
- 36 제일회장단 정원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41 후기 성도의 소리
- 48 애독자 편지

청소년

- 7 아이디어 목록: 성탄절기에 읽을거리 열두 가지
- 8 항상 그를 기억하고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 17 포스터: 십 퍼센트 여러분의 마음을 더하여
- 20 조셉 스미스의 가족 나무
- 22 질의 응답: "제 친구는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교회에 가입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에게 어떻게 답할까요?"
- 35 짧은 메시지
- 46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 친구들

- 친2 기쁨에 찬 절기: 제일회장단이 온 세상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성탄절 메시지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 친6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생애에서: 음악의 은사
- 친8 성탄 강림절 화환 엘리스 블랙
- 친10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중요한 장소들 브리티니 웨트셀라
- 친12 나이지리아의 성탄절 로리 모턴슨
- 친15 특별한 증인: 인물 탐구: 디아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표지

앞: 그림: 윌터 레인, 내 마음의 소망, 복사 금지. 뒤: 사진 촬영: 윌든 시 앤더슨, 버몬트 주 사론의 현재 모습 사진: 역사적 사진 복사 금지.

친구들 표지

삽화: 라파엘 로드리게스 초아이리 로다르트, 웬다 타히아타, 루카르 루안 판사 수도, 마리엘라 안드리아나 판도스, 엘리아스 리베라 에스쿠데로, 빅토리아 고메스, 훌리아 마테르, 에미 헨리카 힐투넨, 안헬리카 에르난데스.



인간의 비전, 컬렉션, MILL POND PRESS, INC., www.millpond.com, 베니스, 플로리다, 복사 금지

그림: 캐시 로렌스, 마음의 보화

마리아가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 [이 아기가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하는 천사의 말을]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누가복음 2:7, 18~19)

제일회장단 성탄절 메시지

한 해의 이 영광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길ियो 진리요
생명”(요한복음 14:6)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에 우리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간증을
전한 자로서 선지자가 행한 비견할 수 없는
역할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 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교리와
성약 76:22~24)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이 살아
계시고 오늘날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우리의 간증을 덧붙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평화가 이 성탄 절기와 다가오는
해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Joseph Smith Jr

조셉 스미스 이세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종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어느 날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 교회에 대단한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셉 스미스를 제외하고는 이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건 모순된 말씀입니다. 당신이 계시를 받아들이신다면, 그 계시자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교회와 그 사업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의 종으로서 지금의 교회가 가진 모든 것, 가르치는 모든 것, 교회가 대표하는 모든 것의 골격을 이루어 낸 사람인 조셉 스미스를 어떻게 경멸할 수 있는지 제게는 끊임없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들은 나무를 자라게 해주는 뿌리를 자르면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암 연구와 심장 연구를 통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고, 후기 성도들이 따르고 있는 건강 규칙은 실제로는 1833년에 “지혜의 말씀”으로 주님으로부터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교리와 성약 89:1 참조) 이것은 그 시대의 식이 요법 책자에서, 또는 그것을 발표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 보면 오늘날 이

계시를 지킴으로써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아릴 수 없는 큰 고통과 때아닌 죽음으로부터 구제되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역사 탐구는 최근 몇 년 동안 대중적인 취미로 자리잡았습니다. 전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 역사 자료가 보관된 후기 성도들의 보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 엄청난 프로그램은 취미 추구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준 가르침의 연장일 뿐입니다. 조셉은 복음을 알지 못해, 결과적으로 복음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그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우리의 조상들 없이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교리와 성약 128:9, 15 참조)

교회라는 놀라운 조직은 조셉이 받은 계시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선지자 조셉이 받은 계시들을 세심히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 조직의 어떠한 것도 수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비교적 최근에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쉬운 복지 프로그램조차도 교회의 초기 시절에 조셉 스미스가 밝힌 원리에 입각해 엄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가정의 밤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교리와 성약 93:40)해야 하는 부모들의 책임에 관한 초기 계시의 연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계시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시를 인정하겠다는 사람들은 나무를 자라게 해주는 뿌리를 자르면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선지자를 찬양함

어느 때인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은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제를 바꿔가며 대화를 나누다가 종교 문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기 성도들에 관해 상당히 많이 읽어 보았으며, 거기에는 행함에 있어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많이 있었으나, 교회의 기원에 관해 특히 조셉 스미스에 관해서는 분명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종파에서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얻었느냐고 제가 묻자, 자신의 교회에서 나오는 출판물에서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컴퓨터 회사의 영업 담당자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고객이 그 회사 제품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주요 경쟁사의 영업 담당자에게서 얻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선생님께서 말씀하려는 요점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교리와 성약을 꺼내어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가 그러한 행함을 가져오게 했던 사람을 경멸하면서도 우리에게 대해 찬사를 보냈던, 그런 행함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그는 제가 보내 줄 책자들을 읽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교리와 행함이 참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소개되는 데 도구 역할을 했던 사람의 참됨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조셉 스미스의 예언적인 부름에 관해 확신에 찬 간증을 그에게 했습니다. 시골 버몬트의 보잘것 없는 환경에서 200년 전



우리는 선지자 조셉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존경합니다.
신권과 더불어 신성한 복음에 대한
고대의 진리를 이 지상에 회복시킨 도구,
즉 전능자의 손 안에서 쓰인 도구로서
선지자 조셉을 존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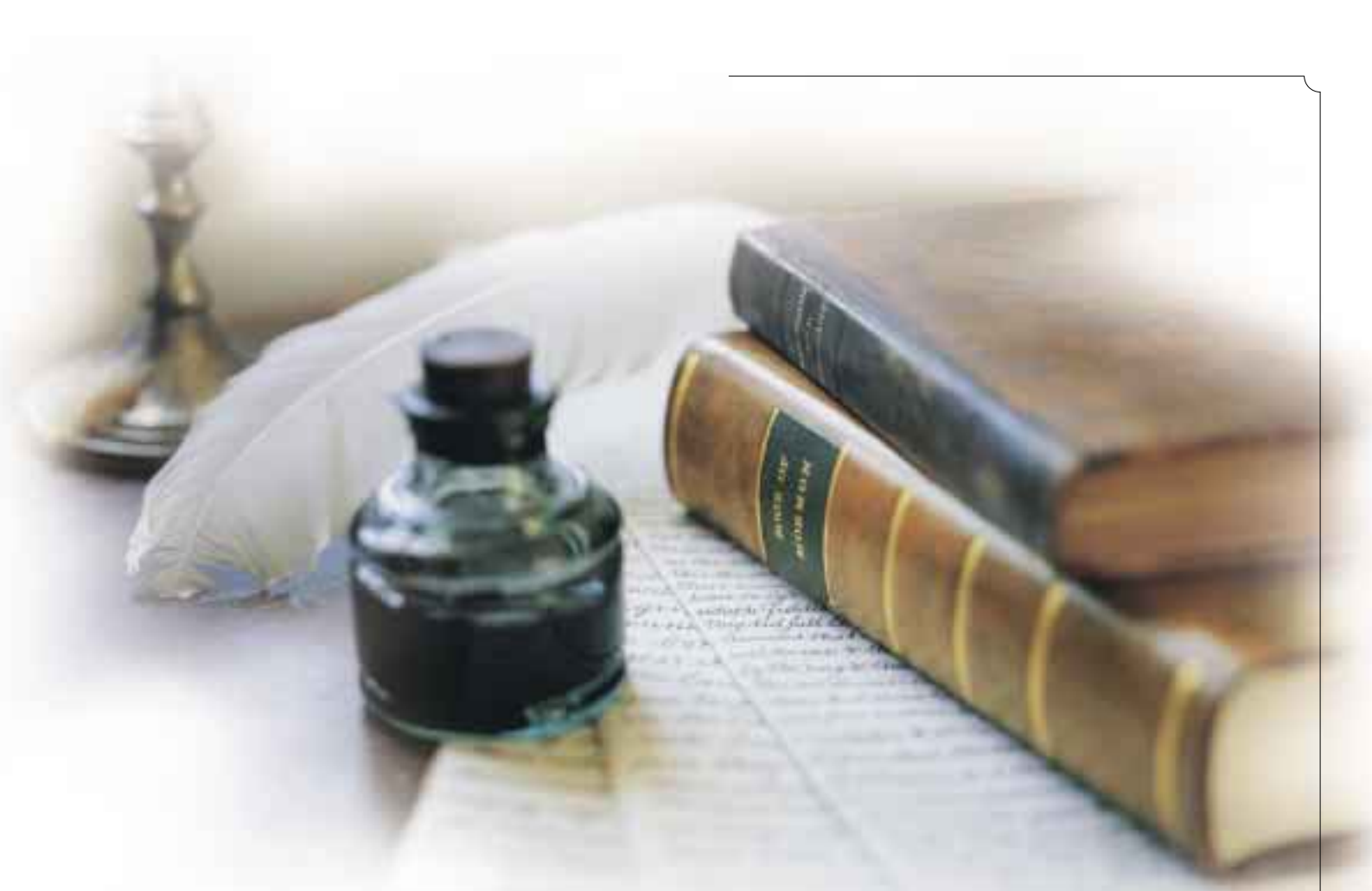
이 달에 태어난 이 남자 아이는 지상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예임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 조셉을 인정합니다. 그를 찬양합니다. 그를 존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되는 권세인 신권과 더불어 신성한 복음에 대한 고대의 진리를 이 지상에 회복시킨 도구, 즉 전능자의 손 안에서 쓰인 도구로서 선지자 조셉을 존경합니다.

조셉의 생애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 태어나, 역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곳 저곳으로 쫓겨 다니고, 부당한 고소를 당했으며 또한 불법적으로 투옥 당했습니다. 그는 38세의 나이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 2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다른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도 하지 못할 일을 성취했습니다. 그는 몰몬경을 번역하고 출판했으며, 이 책은 그 이후 많은 언어로 재번역되었고, 또 지상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들과 그가 만든 다른 기록들은 이들 수백만의 사람들에게는 경전과 다름없습니다. 책으로 된 총 분량은 신약전서 전체의 약 두 배에 달하며, 그 모든 것이 몇 년 동안에 한 사람을 통해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그는 한 조직을 세웠는데, 그것은 175년 동안 갖은 역경과 도전을 이겨내 왔으며, 또한 1830년에 300명의 회원을 관리할 때처럼 전세계적으로 1,200만 명을 관리하는 오늘날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놀라운 조직체를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산물로 설명하려고 애쓰는, 의심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직이 오늘날에도 그러하듯이 그 당시에도 특이하고, 독특하고, 훌륭한 조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대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왔습니다.



불멸과 영원

인간의 불멸성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관점은 전세부터 무덤 너머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구주께서 이루신 속죄를 통해 부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구원이 보편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의 이면에는 복음의 원리에 대한 순종이라는 요구 조건,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이생에서의 행복, 그리고 다음 생에서의 승영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가 가르친 복음은 그의 세대와 후대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직접 배운 조셉의 마음은 인류의 온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는 복음 의식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고대의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4:6) 죽은 자들의 경우, 그들이 육체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 사업이 있어야 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찾아야

조 션은 몰몬경을
번역하고
출판했으며, 이
책은 그 이후로 많은 언어로
재번역되었으며, 또 지상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위대한 가족 역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죽기 전 20년 동안에 조셉 스미스는 지상의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행한 그 담대함에 경탄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초기 시절, 어려운 역경의 시기에, 형제들이 부름을 받아 가정과 가족을 떠나고, 바다를 건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의 마음, 그의 시현은 온 세상을 에워쌌습니다.

일년에 두 번 갖는 연차 대회 모임을 위해, 회원들이 북미, 중미, 남미에서 그리고 영국과 아프리카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태평양 지역의 대륙과 섬들에서, 아시아의 오래된 땅에서 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시현의 결실입니다. 그는 참으로 주님의 사업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는 이

1 >



12월 14일: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7:14~15, 9:6~7, 53장에서 구주의 신성한 사명과 탄생에 관해 예언하고 간증했다.

2 >

12월 15일: 니파이는 구주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후의 주님의 성역을 시현으로 보았다. 니파이전서 11:9~33, 12:4~8에 있는 니파이의 기사를 읽는다.



3 >

12월 16일: 베냐민 왕은 모시아야서 3:1~12, 20~21에서 구주의 오심에 관해 간증했다.



4 >

12월 17일: 레이맨인 선지자 사무엘은 힐라맨서 14장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에 관해 사악한 니파이인들에게 예언했다.



12

12월 25일: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을 읽고 깊이 생각한다. 이 선언문을 www.lds.org,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또는 리아호나. 2000년 4월호에서 구할 수 있다. 여러분의 간증을 일지에 기록한다.

아이디어 목록



성탄 절기에 입을거리 열두 가지

구주에 관해 더 많이 읽음으로써 올해의 성탄절을 특별한 날로 만들 수 있다. 다음은 이를 돕고자 경전에서 선정한 구절들이다. 성탄절까지 매일 한 구절씩 공부한다.

5 >

12월 18일: 교리와 성약 76:19~24, 40~42에 있는 구주에 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읽는다.



11 >

12월 24일: 그리스도의 탄생 전야에, 선지자 니파이는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인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다. 제3니파이 1:9~22에 있는 주님의 응답과 선지자 사무엘의 예언의 성취를 읽는다.

6 >

12월 19일: 선지자 엘마는 엘마서 7:7~13에서 구주와 속죄의 권능에 대해 간증했다.

10 >

12월 23일: 마태복음 1:18~25, 2장에 있는 구주의 탄생에 관한 마태의 기사를 읽는다.



< 9

12월 22일: 마가복음 1~2:13에 있는 구주의 침례와 성역에 관한 마가의 기사를 읽는다.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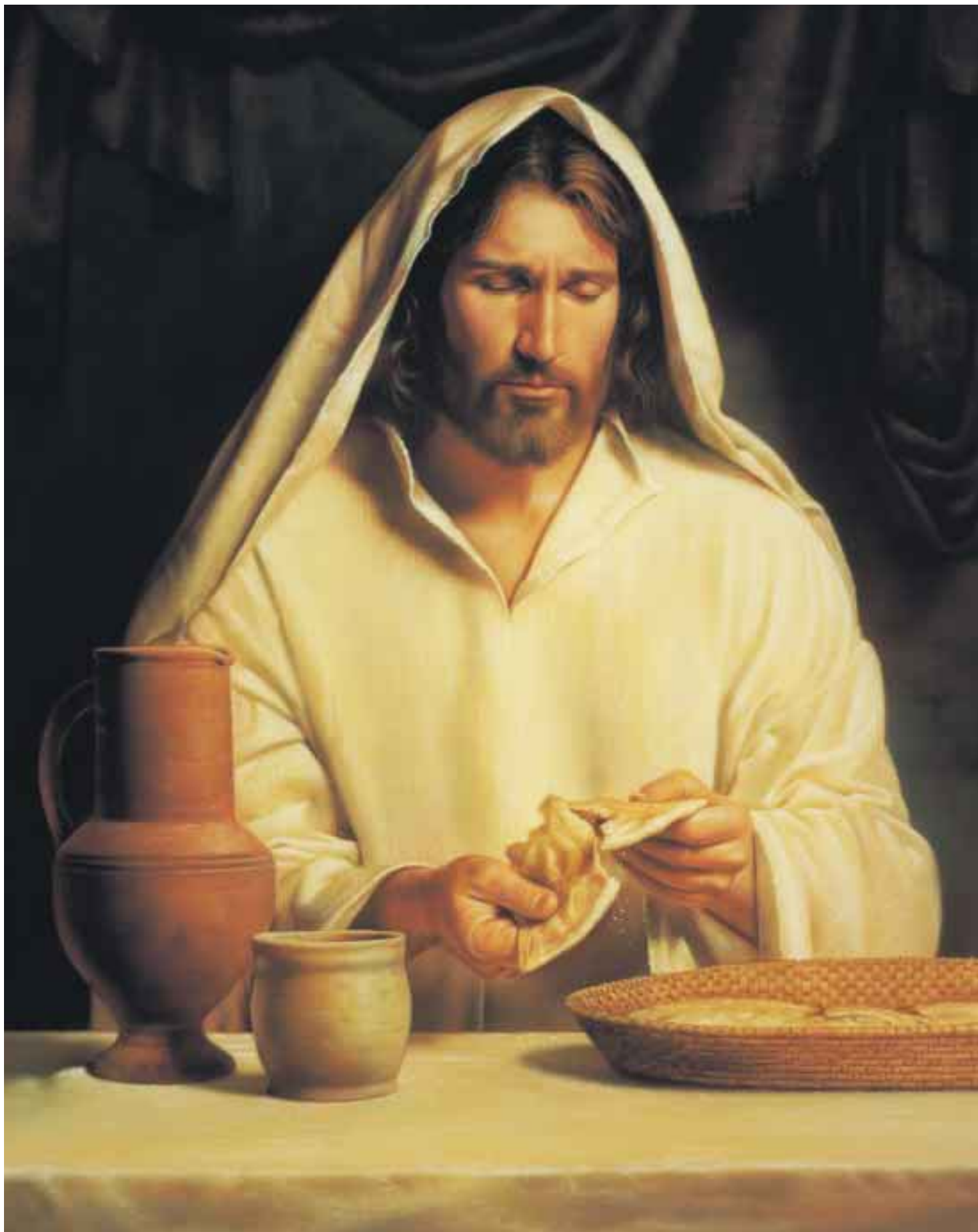
12월 21일: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구주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누가의 기사를 읽는다.



< 7

12월 20일: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경험에 관해 읽는다.





항상 그를 기억하고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 찬식 때마다 항상이라는 낱말이 성약, 즉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성스러운 약속에서 사용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권한을 받은 종들이 읽고, 여러분이 듣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교리와 성약 20:77)

우리는 “항상 그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내리 누르는 필멸성이라는 기질이 주어져 있음에, 그분이 왜 항상이라는 낱말을 사용했는지 여러분도 저처럼 의아하게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분을 기억하라는 성약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모든 목적을 알 만큼 저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압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과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그분께서 완전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상반되는 세력

여러분과 저는 주위에서 상반되는 커다란 두 가지 세력이 급속히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의 세력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전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수적으로 많이, 그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부름을 받고 있어 그 수와 그들이 가는 지역을 파악할 때마다 어느 새 그 내용이 급격히 변해 나의 지식이 금세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상반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힘이며, 현저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굳이 그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언론 매체와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비극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타락시키고 고통을 주는 죄의 힘에 대한 허용 그리고 그에 대한 부추김이 늘어난다는 불길한 징조를 분명히 감지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상반되는 세력의 권세가 커지는 것을 완전하게 미리 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필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삶의 근심거리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며, 또한 자녀를 지상으로 데려오라는 명에서 오는 근심과 걱정, 심지어는 슬픔에 관해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직면하는 시련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처하는 인간적인 능력이 커졌다 줄었다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토록 쉽게 범하는 실수, 즉 우리에게 작용하는 힘들을 과소 평가하고 인간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유일한 안전책인 그분에게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항상 그를 기억”하라는



만 일 우리가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약과 “항상 깨어 기도”(제3니파이 18:18) 하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더 열심히 노력하기 위한 절실한 동기입니다. 위험은 지연과 표류에 있습니다.

영적인 발전

제 말씀의 핵심은 당부, 경고, 그리고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발전시키는 단순한 일들을 행할 것을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경전을 주셨는데, 그것은 선지자들께서 한량없는 값을 치러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경전에 몰입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읽고,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몇 년 전의 어느 12월에 저는 경전을 열린 마음으로 연구하려 더욱 열심히 노력할 때 오는 권능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모임에서 제 옆에 앉아 있는 어떤 사람의 경전을 보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하듯이 경전에 표시를 했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에게 유용한 모든 성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표시해 놓은 성구를 색상에 맞추어 색색의 견출 표지를 가장자리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 날 저는 저렴한 가격의 경전을 한 세트 샀습니다. 그러나 제게 경전을 새롭게 열어 주게 될 주제들을 아는 데는 며칠이 아닌 그 이상의 여러 날과, 몇 번의 기도가 아닌 그 이상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 부름에 관해 가르쳐 주는 주제들을 택했습니다. 첫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였으며, 다음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경전을 새로 한 세트 사라거나, 색색의 견출 표지나 색연필을 마련하라거나 제가 택한 주제들을 택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을 열어 주는 어떤 방법으로도 경전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많은 성구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단 몇 주 만에 제가 구주에 관해 기억했던 것과 그분에 관해 느꼈던 것이

보다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목적을 갖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성탄 절기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분을 항상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으나, 저는 그분의 탄생 기사에 끌렸습니다. 니파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말한 것으로, 물문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은 제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백성에게 옴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알게 한 모든 것을 이루며,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을 아울러 행하기 위함이니—아버지의 뜻이라 함은 나로 인함이요, 아들의 뜻이라 함은 나의 육신으로 인함이라. 이에 보라 때가 가까웠은즉, 이 밤에 표적이 주어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에게 임한 말씀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니, 이는 보라 해가 저도 어둡지 아니함이라, 이에

백성들은 밤이 되어도 어둡지 아니하므로 놀라기 시작하더라.”(제3니파이 1:14~15)

시간이 지나자, 전에는 결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는 어둠이 없이 태양이 저물 것이라는 레이먼인 사무엘의 예언의 성취를 정신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꼈습니다.(힐라맨서 14:3~4 참조) 마치 제가 그 약속의 땅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던 것처럼 그분의 탄생 시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분이 부활한 영광스러운 분으로 오셔서 감람산에 서실 때를 보았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그분의 날개를 고치고 오실 때 어둠이 쫓겨날 것입니다. 그런 고침이 제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기에, 그 빛을 생각할 때 기쁨과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제 가슴이 거의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에 그분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 광경이 없이는, 태양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저는 새로운 날의 새벽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 믿습니다.

경고

저는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할 권리와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전을 찾아볼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신이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이 일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주에 대해 점점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분에 대해



사랑으로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지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노력으로 충분하다고 작성하고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경고는 원인과 결과의 단순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멀어지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릇 나 주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느니라.

“그러할지라도 회개하고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받으리라.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받았던 빛마저도 그에게서 거두어지리니, 무릇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시지는 아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교리와 성약 1:31~33)

만일 우리가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연하거나 표류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빛은 우리의 발에서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약속

다음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구주께로 돌려 그분을 항상 기억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께 가까이 간다면, 영적인 갑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공도 인간의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보호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행하도록 하신 것들을 행하기에 우리가 너무 약하고, 너무 경험이 없고 또한 너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보호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로나이서에 기록된 이런 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러도 다 행할 수 있으리라 하셨느니라.”(모로나이서 10:23)

또 하나의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는 성약을 지키기를 택하든 또는 그렇지 않든, 그분은 여러분을 항상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독생자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여러분의 구주, 저의 구주, 그리고 우리가 알거나 만나게 될 모든 이의 구주가 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부활하셨으며, 그분의 속죄로 인해, 율법에 순종하고 복음의 의식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목적을 갖고 경전을 상고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성신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예수님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커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

1999년 1월 3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있었던 교회 교육 기구 노년의 모임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경전을 새로 한 세트

사라거나, 색색의 견출
표지나 색연필을
마련하라거나 제가 택한
주제들을 택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을 열어 주는 어떤
방법으로 경전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된 성탄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아이다호에서 1907년 11월 14일에 벨리 마리 라스무센과 존 윌리엄 헌터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59년 10월 15일에 사도로 성임되었으며, 1994년 6월 5일에 교회 회장이 되었고, 1995년 3월 3일에 세상을 떠났다.

참된 성탄절은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생동적이고, 역동적이고, 활력을 주는 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1907~1995년)
제14대 교회 회장

성 탄절은 분주한 절기입니다. 거리와 상점은 막바지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칩니다. 고속 도로에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공항은 혼잡해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음악과 조명과 화려한 장식으로 활기를 띠는 것 같습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명절 중에서 사람의 마음속으로 그토록 완전히 들어와 그토록 많이 높은 심경을 일깨운 적은 없다. 그것과 연관된 생각, 추억, 소망, 관습들은 역사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린 시절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본성의 종교적, 사회적 및 애국적 측면들을 포함한다. 상록수들 사이에 휘감겨 있는 장식 가지와 열매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관습, 성탄절 트리, 산타 클로스에 대한 환상,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져 성탄절을 정말 기다리게 만들고, 가장 보편적이고, 또한 모든 견지에서 볼 때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중요한 명절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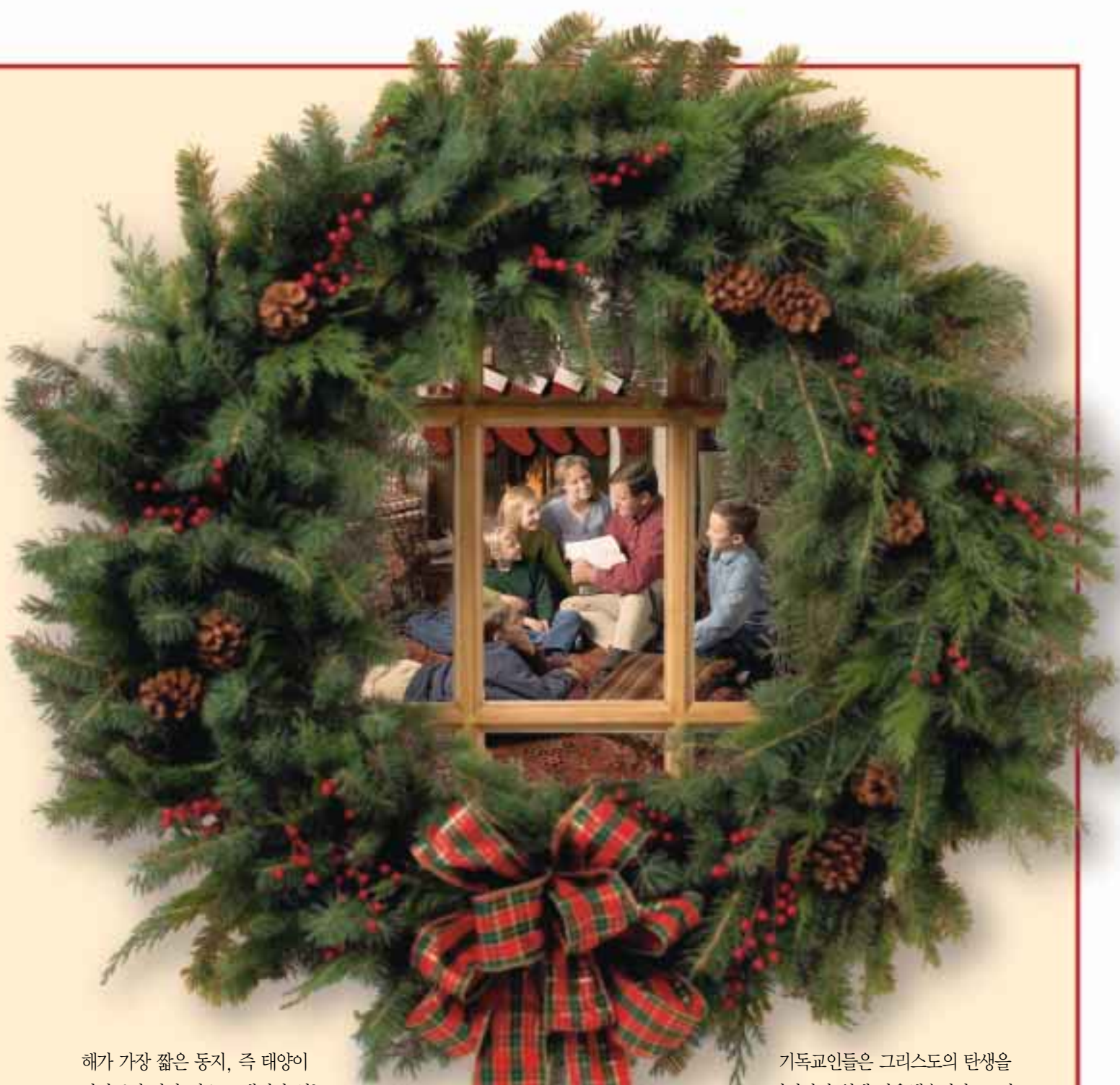
[Clarence Baird, “The Spirit of Christmas”, *Improvement Era*, 1919년 12월호, 154쪽]

성탄절의 기원

성탄 절기는 전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뿌리는 역사적으로 아주 깊습니다. 이 명절의 시작은 기독교가 전파되기 오래 전의 이교도 예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의 아리안족은 미트라 신을 예배했는데, 이 예배가 점차로 인도와 페르시아로 퍼져 나갔습니다. 처음에 미트라라는 밝은 하늘의 빛을 관장하는 신이었는데, 나중에 로마 시대에는 태양의 신, 즉 Sol Invictus Mithra로 예배 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폼페이우스는 소아시아에서 길리기아(소아시아 동남부에 있던 고대 국가)의 남부 해안을 따라 정복해 나갔으며, 당시의 군사 작전을 통해 잡힌 포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이 포로들이 로마 병사들 사이에 그 종교를 퍼뜨렸기 때문에 이로써 미트라에 대한 이교도 예배가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이 예배가 대중화되었으며, 특히 로마군 병사들에게 더욱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대한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의 폐허 속에서 미트라 신전을 볼 수 있습니다. 미트라교는 로마 영토 내에서 번성하여 사람들의 종교적 믿음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태양신의 예배자들을 위한 축제 절기가 일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지, 즉 태양이 남반구의 가장 밑으로 내려가 있는 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 미트라 재탄생으로 여겨졌으며, 로마 사람들은 매년 12월 25일에 이 탄생을 경축했습니다. 이 명절에는 흥청대는 큰 분위기가 있어, 축제와 잔치를 벌이고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거주하는 곳을 상록수로 치장했습니다.

점차로 기독교인들은 가장 강력한 맞수였던 미트라교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미트라 재탄생을 경축하는 축제일을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로마 문화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태양에 대한 이교도 예배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축제의 하나로 변모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날, 기분 좋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날로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비록 이날이 세속적인 관계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신성한 날입니다. 고대의 기독교 기념일이 수세기를 지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살아 남았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의 의미

오늘날 성탄절은 어떻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산타 클로스의 전설, 성탄절 트리, 반짝이는 금실과 나뭇가지 장식, 선물을 주는 일 등 이 모두는 우리가 기념하는 날의 정신을 나타내 줍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참된 정신은 이 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 의미를 구주의 생애에서, 그분이 가르치신 원리에서, 그분의 속죄의 희생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오래 전에 교회의 제일회장단은 이러한 뜻깊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후기 성도들에게 성탄절은 화상적이고 예언적인 것으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여겨지게 될 두 가지 위대하고 엄숙한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들 사건은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곳에서 일어나도록 [예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구주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려 절정의 시대에 오신 것이며, 다른 하나는 만왕의 왕으로서 지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된 구주께서 장래에 강림하시는 일입니다.” [“What Christmas

Suggests to a Latter-day Saint”, *Millennial Star*, 1908년 1월 2일, 1쪽]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짧은 편지에서 바울은 그들의 명백한 불신앙과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가르침을 버리는 것에 관해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라디아서 4:18~19) 달리 말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형상” 이룰 때까지 고통과 근심을 감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여러 글에서 반복해 사용했던 표현처럼,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은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형상”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분은 단순하게 일반적인 진리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항상 사람들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노력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형상” 이룹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권고를 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권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상”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속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 구속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의해 사람은 자유롭게 됩니다. 이 평강의 왕은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며, 그 평화는 각 사람이 그런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성탄절은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생동적이고, 역동적이고, 활력을 주는 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옵니다. 성탄절의 참된 정신은 주님의 생애와 사명에 있습니다. 저는 한 작가가 성탄절의 참된 정신을 정의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이며, 우주적인 형제애의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것은 잊고 오직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행한 것만을 기억하며, 세상이 여러분에게 빚진 것을 무시하고, 오직 ...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의무와 선을 행하고 눈에 띄는 이웃을 도울 기회만을 생각하면서, 그 이웃들이 여러분만큼이나 잘 있는지 살피고, 그들의 표정 뒤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고,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원망의 책을 덮고, 행복의 씨앗 몇 알을 심을 자리를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 남모르게 여러분의 일을 하겠다는 자발성입니다.” [Improvement Era, 1919년 12월호, 155쪽]

성탄 절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제임스 윌링포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루, 한 절기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상태이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풍요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 속에서 은혜가 넘친다면,
사랑을 자랑하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다면,
형제가 뺄 한 조각을 구할 때, 우리 자신을 대신 내어준다면,
매일 새벽을 기회로 시작하고, 작더라도 성취로 하루를

우 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노력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형상” 이룹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권고를 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권고해 주실
것입니다.

달는다면,
그때에는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이요, 성탄절이 항상 가까이
있으리라.

[Charles L. Wallis 편, Words of Life(1966년), 33쪽]

한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절 이야기에 관한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적합성이다.
그것은 모든 시대에 알맞고 또한 모든 삶의 형태에 들어맞는다.
그것은 전에 들었던 그저 멋진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 있다.
그것은 모든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다. 목자가 별빛을 따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갔던 그 오래 전의 밤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의미가 있다.” [Joseph R. Sizoo, Words of Life,
33쪽]

성탄절이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이 지나고 성숙한 이해력이 그 자리를
이어받을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사도행전
20:35)라는 구주의 간단한 가르침이 현실이 됩니다.
이교도적인 명절이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상으로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기독교 축제로 변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오는,
또다른 형태의 성숙입니다.

참된 성탄절 정신의 발견

여러분이 성탄절의 참된 정신을 발견하고 그 달콤함을 맛보고
싶다면, 이러한 권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 절기라는 이 흥겨운
시기를 바빠 보내는 동안,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혼자서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든 무릎을 꿇고, 여러분에게 온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 열심히 노력할 때 그분의 영이 여러분에게 거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직접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들, 세상의 구주의 신성에 대해
간증드리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상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축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1972년 12월 5일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행한
영적인 말씀에서



십일조에 대한 어느 가족의 간증

돈 엘 설
교회 잡지

주께서 십일조를 내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로 그 말을 하셨을까?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에 사는 한 가족은 경험을 통해 찾아온 축복에 관해 말할 수 있다.

호세 안토니오 살라자르와 그의 아내 노에미는 1975년에 교회에 들어온 이후로 최선을 다해 교훈과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딸인 세셀리아 노에미는 커서 선교사로 봉사했고, 역시 귀환 선교사로 가정에서 복음에 대한 순종을 배우며 성장하여 현재는 산살바도르에서 교회 교육 기구의 관리 책임자로 있는 루이스 리카르도 아르비수와 결혼했다. 루이스와 세셀리아는 열일곱 살 실비아 노에미와 열 살 루이스 리카르도, 두 자녀를 두고 있다.

호세는 충실하게 십일조를 낸 결과로 받았다고 자신이 믿고 있는 매일매일의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매일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양호한 건강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신과 아내가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는 동안 성전 봉사자로 일하게 된 축복과 기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제가 주님께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더 말입니까?”

그의 아내인 노에미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方便과 기회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영적인 기회가 십일조의 법과 다른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 왔다고 믿고 있다. “교회에서 부름을 갖고 있는 것이 제게는 언제나 축복이었습니다.”

사위인 루이스 아르비수는 자신의 어머니가 음식을 파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회상한다. 어머니가 교회에 들어온 이후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매출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어머니를 축복해

주셨다. 루이스와 세셀리아가 결혼했을 때 그의 봉급은 무척 적었다. 그러나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직후에 그의 봉급이 세 배로 올랐으며,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의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세셀리아는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겠다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생각한다고 언급한다. 그녀는 “가장 큰 필요 사항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녀의 가족이 받은 영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를 말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순종적입니다.”라고 말한다.

루이스 리카르도는 십일조를 낸 결과로 자신의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순종의 모범을 보여 주신 부모님을 고맙게 생각한다.

실비아는 십일조의 법과 다른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통해, “저는 학업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간증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 간증이 미래의 제 가정을 강화시킬 거예요”라고 설명한다. ■



십 퍼센트

여러분의 마음을 더하여

그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꺼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십일조를 내십시오
(교리와 성약 64:34 참조)



선지자의 생애

요람

버몬트 주 샤론

버몬트 주 샤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복의 요람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조셉 스미스 이세가 1805년 12월 23일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조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의 다섯째 자녀인 조셉 스미스 이세는 양육되고 사랑을 받으면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점차 발전해 나갔다. (에베소서 1:10 참조)

조셉 일세와 루시 두 사람은 뉴잉글랜드 가문의 후손이었다. 그들은 1796년부터 1816년 사이에 버몬트 주와 뉴햄프셔 주 안에서 여러 차례 이사를 했으며, 그 곳에서 열한 자녀 중 열 명이 태어났다.

뉴햄프셔 주 웨스트 레바논에서 유행성 장티푸스가 번졌다. 일곱 살의 조셉 이세(맨 오른쪽)는 왼쪽 다리가 심각하게 감염되었다. 두 번의 수술이 실패한 뒤에 다리 절단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졌지만 루시는 의사들이 다시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수술에는 핀셋으로 뼈의 일부를 긁어 내는 처치가

포함되었다. 조셉은 커다란 고통을 겪었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삼 년 동안 계속 농사가

실패하자 스미스 가족은 1816년에 뉴욕 주 팰마이러로 이사했다. 버몬트 주 샤론에서의 스미스 가족 시대에 대해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증거에는 가족들이 만든 돌다리(오른쪽 원내)와 원래의 오두막 집에서 나온 벽난로 바닥돌이 있다. (위쪽 원내)

선지자 조셉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1838~1918년)은 오벨리스크(뒷배경)와 기념관(왼쪽 원내)을 헌납했고, 이 건물은 방문자 센터로 사용되었다. 기념탑은 38 1/2피트(11.7 미터) 높이로, 선지자의 생애 일년을 1피트로 계산한 것이었다. ■



뒷배경: 사진 촬영: 윌든 시 앤더슨; 그림: 데이비드 린드슬리, 조셉 형제의 일부; 왼쪽 원내: 복사 금지; 위 쪽 원내: 사진 촬영: 윌든 시 앤더슨; 그림: 디어도우 에스 고르카, 소년 조셉 스미스



보 리검 영 회장
(1801~1877년)은
— 이렇게 말했다. “주님은

[조셉 스미스]를 눈여겨 보았고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의 선조들에게 눈을 돌려 ...
아담에게까지 계속 눈을 돌리셨습니다. 주님은 그 기원부터 조셉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내려온 가계와 혈통을 주시하셨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관장하도록 영원 가운데서 예임되었습니다.”¹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조상과 뉴잉글랜드에서의 가정 교육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애국심을 갖는 것을 포함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²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년), 96쪽.
2. 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2000년), 15~27쪽 참조
3. Lucy Mack Smith, *History of Joseph Smith*, 편집 Preston Nibley(1958년), 182쪽.
4. Richard Lloyd Anderson, *Joseph Smith's New England Heritage*(1971년), 112쪽에서 인용.
5. John Henry Evans, *Joseph Smith: An American Prophet*(1989년), 23~24쪽 참조; 또한 19~30쪽 참조.

1 로버트 스미스

로버트는 선지자의 3대조였다. 그는 십대였을 때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여 1638년에 보스턴에 도착했다.

2 메리 프렌치

선지자의 3대 조모인 메리는 10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매사추세츠 주의 탐스필드에서 대부분의 결혼 생활을 보냈다.

3 새뮤얼 스미스 1세

새뮤얼은 1666년에 로버트와 메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탐스필드 읍내와 군 행정 기록에서 “신사”로 알려졌다.

4 레베카 커티스

레베카에게는 아홉 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녀의 첫째 아들이 새뮤얼 2세였다.

5 새뮤얼 스미스 2세

새뮤얼은 기독교인, 지역 사회 지도자 및 미국 독립 전쟁의 지지자로 잘 알려졌다.

6 프리실라 굴드

프리실라는 다섯 명의 자녀를 두고 사망했다. 그녀가 죽은 후 새뮤얼은 그녀의 사촌과 결혼했으며, 그녀는 프리실라의 자녀들을 양육했다.

9 조셉 스미스 1세

조셉은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이었다. 그는 버몬트 주 턴브리지에 있는 처남의 가게에서 아내 루시를 만나 1796년에 결혼했다. 여러 번 조셉은 복음의 회복과 자신의 아들의 부름을 지지하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꿈을 꾸었다. 루시는 그가 “애정이 많은 동반자였으며 어느 아버지보다도 부드러웠고, 가족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³

그는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첫 번째로 침례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의 첫 축복사가 되었다.

8 메리 듀티

메리는 11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매사추세츠 주에서 버몬트 주로 이사했다. 후에 메리는 자신의 손자가 선지자라는 강한 간증을 가졌다. 1836년에 메리는 성도들과 함께 모이기 위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 갔다. 그녀는 그곳에 도착한 지 10일 만에 사망했다.

조셉 스미스의

그림: 엘빈 기틴스, 조셉 스미스

7 아사엘 스미스

1744년에 태어난 아사엘은 선지자의 조부였다. 그는 30년간 버몬트 주의 텀브리지에 살면서 여러 차례 공직에 선출되었으며, 지역 사회 봉사로 인해 유명해졌다. 그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사후의 삶을 믿었다. 그는 또한 구주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다. 아사엘은 이렇게 예언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가계 중의 어떤 지파를 일으켜 인류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다."⁴

노년에 아사엘은 돌몬경을 읽었다. 그가 사망했던 1830년 후반에 그는 돌몬경이 참되며 자신의 손자가 선지자임을 알았다.

15 존 맥

존은 조셉 스미스 2세의 외고조부였다. 16세였을 때 그는 스코틀랜드의 인버네스를 떠나 1669년에 뉴잉글랜드에 도착했다.

6 사라 배글리

사라와 그녀의 남편은 코네티컷 주의 라임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그들은 12명의 자녀를 두었다.⁵

13 에벤에저 맥

에벤에저는 존과 사라 맥의 여덟 번째 자녀였다. 그와 그의 가족은 맥 가족의 재산으로 생활했지만 그곳에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14 한나 헨틀리

한나는 에벤에저가 30세였을 때 그와 결혼했다.

10 루시 맥

루시는 19세쯤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때 루시가 심하게 앓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주님께 간구했으며, 주님이 자신을 살게 해주신다면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위안을 주는 음성을 들었으며,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종교를 계속해서 찾았다. 조셉 스미스 2세는 그녀의 다섯 번째 자녀이며, 그가 회복한 복음은 그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녀의 자녀들로는 출생 후 곧 사망한 한 명의 이름 없는 아이와 앨빈, 하이럼, 소프로니아, 조셉, 새뮤얼, 이프레임, 윌리엄, 캐더린, 돈 칼로스, 그리고 루시가 있었다.

11 솔로몬 맥

1732년에 태어난 솔로몬은 겨우 네 살의 나이로 이웃의 농부에게 농사일을 배우도록 보내졌다. 그 후 그는 프렌치-인디언 전쟁에 참가했으며 상인, 택지 개발자, 선장 및 농부이기도 했다. 그는 살면서 별뿔뿔 나무에 맞은 것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불운의 사고를 당했다. 생애 후반에 그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마음을 돌이켰다.

솔로몬은 조셉이 첫번째 시현을 받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사망했다.

12 리디아 게이츠

리디아는 학교 선생이었다. 그녀는 1759년에 솔로몬과 결혼했으며, 자신의 여덟 자녀와, 아마 남편에게도 읽기, 쓰기와 종교에 관해서 가르쳤다.

조셉 스미스 이세

선지자 조셉은 1805년 12월 23일에 11명의 자녀 중 다섯 번째로 태어났다. 조셉은 1827년에 에머 헤일과 결혼했다. 그들은 입양한 두 명의 자녀를 포함하여 12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는 1844년 6월 27일에 순교했다. "[그는] 지을 수 없는 명성과 이름을 남겼느니라.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보기에 위대하게 살다가 위대하게 죽었느니라.』(교리와 성약 135:3)



가족 나무

질문의 응답

“제 친구는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교회에 가입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에게 어떻게 답할까요?”

리아호나의 대답

조 셉 스미스가 없다면 교회는 무엇과 같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신권이나 선지자가 있을까요? 우리는 몰몬경, 성전, 영원한 가족, 또는 현대의 계시를 가지고 있거나 신화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까요?

형제님의 친구는 교회에 대한 어떤 것을 믿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좋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가 믿는다면,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은 것이 틀림없음을 그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선지자 조셉이 없었다면 교회와 우리의 삶에서 교회의 축복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제님의 친구는 배도와 교회, 신권 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이 필요함을 이해합니까? 그는 교회가 모세와 아브라함과 같은 선지자들에게 의해 항상 인도됨을 이해합니까? 그렇다면, 조셉 스미스는 주님이 “그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 ... 나의 말을 가져다 주게 하며”(니파이후서 3:11),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를 희미한 데서 그리고 캄캄한 데서”(교리와 성약 1:30) 이끌어 나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선지자임을

복음이 지상에 있을 때, 선지자는 교회를 인도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후일의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노력으로 많은 축복이 왔습니다. 그는 몰몬경을 번역했고, 교리와 성약에 있는 계시들을 받았으며, 그를 통해서 신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는 것은 우리가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음을 알도록 도와 줍니다.

형제님의 간증을 친구에게 전하고, 그가 몰몬경과 조셉 스미스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것들에 관해 기도해 보도록 권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부름에 대한 또다른 증거는 몰몬경입니다. 형제님의 친구가 그것을 읽을 때,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썼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번역했을까?”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몰몬경을 번역할 수 있는 능력”(교리와 성약 1:29)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몰몬경이 참되다면 조셉 스미스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형제님의 친구의 간증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음으로써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형제님은 그가 아직 선교사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의 친구는(값진 진주의) 조셉 스미스-역사에 있는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은 영을 초대하여 형제님의 친구에게 조셉 스미스의 경험이 참됨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님의 친구에게 조셉 스미스가 했던 것처럼 신앙으로 기도할 것을 권유하십시오. 그가 진정으로 진리를 구한다면, 영의 확신을 얻을 것입니다.



독자들의 대답



저는 조셉 스미스와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놀라운 시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형제님의 친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에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케이틀린 버드웰, 19세, 워싱턴 셀라 스테이크
나치스 와드

이 교회에 가입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조셉
스미스의 사업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지자
조셉을 통해서 회복되었으며, 교회의 참됨이 첫번째
시현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형제님의 친구를 돕기 위해 저는 형제님이 조셉
스미스에 대해 간증하고 그에게 사랑과 우정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기를 제안합니다.

아나 라브렌트예바, 18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방부, 트센틀라니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

조셉 스미스의 사명은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의
간증에 대한 하나의 토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회복이 그로부터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우리 교회도 거짓입니다.
반면 그의 이야기가 참이면 당연히 우리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도 참됩니다. 그러므로 구도자는
교회에 가입하기 전에 먼저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크리스티나 이 발리아오, 21세, 필리핀 바기오
스테이크 바기오 대학교 와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현대의 선지자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자신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안드레아스 스토클름 박스테르, 17세, 덴마크 코펜하겐 스테이크 발레루프 와드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가 참되다는 간증을 해보십시오. 형제님은 간증이 자신의 친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놀랄 것입니다. 친구에게 조셉 스미스-역사를 읽어 보고 그것이 참된지를 하나님께 여쭙어 보라고 말하십시오. 또한 형제님의 친구가 물문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도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문경을 번역했음이 틀림없습니다. 형제님의 친구가 교회의 다른 교리들이 참됨을 믿는다면, 이러한 믿음은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가 참됨을 의미합니다. 조디 헛트, 13세, 아이다호 슈거 시티 스테이크 슈거 시티 제3와드



첫번째 시현, 참된 교회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 없이 이 교회가 참되다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쭙어 볼 수 있으며, 그분은 야고보서 1장 5절과 모로나이서 10장 3~5절에 있는 자신의 약속처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비에르 폴리도 장로, 21세,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선교부

회복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조셉 스미스가 본 시현의 진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물문경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교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님의 친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며 그것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그것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파비올라 엘라헤르, 15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스테이크 린츠 우르파르 와드



우리는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

“우리의 모든 힘은 그 시현의 진실성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았습니 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사기입니다.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늘 아래 가장 기이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고든 비 힐클리 회장, “우리 신앙의 놀라운 기초”,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0쪽



친구에게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하십시오. 친구에게 스스로 그 이야기를 읽고 그것에 대해 기도해 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는 조셉 스미스가 받았던 것처럼 답을 얻을 것입니다.

레베카 버크, 16세, 애리조나 글로우브 스테이크 글로우브 제1와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은 우리 종교의 정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 필요한 권세가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선지자들을 불렀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스테판 세르케이이라 레비타, 18세, 브라질 이타부나 스테이크 일헤우스 센트로 지부

리아호나와 독자들의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독자들에게: 아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여러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또는 지부 및 지방부), 사진(사진을 인쇄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와 함께)과 함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 Answers 1/06

50 E. North Temple St., Floor 24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cur-liahona-imag@ldschurch.org

2006년 1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질문

“저의 부모님은 이혼했으며, 우리는 성전에서 인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따금 저는 우리가 ‘진짜’ 후기 성도 가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느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기뻐함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우리 종교의
기본적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3:30)

우리는 어떻게 속죄 안에서 기뻐하는가?

로마서 5:10~11: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1856~1945년): “저는 예수께서
세상의 구속주이시요, 우리의 만형이시며,
그분의 이름만이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며,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와 우리보다 앞서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다시 살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뻐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 [2002년],
225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속죄는 온 인류
역사에서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속죄는
보편적인 부활을 가져다 주었으며, 우리가
직접적으로 회개하고 용서 받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켜
… 생각을 바꾸고, 그런 후에 행동까지도
바꿉니다.] … 따라서 회개는 우리 각자가
참된 안도와 용서, 그리고 참된 발전을
위해 속죄에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 위대한 속죄의
축복을 구하는 일은 … 우리의
몫입니다.”(“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속죄에
대한 간증”,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7~8, 13쪽)

우리는 어떻게 속죄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가?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복음의 필수적인 의식들은 속죄를
상징합니다. 침수로써의 침례는 구속주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성찬을 취하는 것은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해 주며 또한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찢긴 살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 줍니다. 성전 의식들은 우리가
주님과 화해하는 것과 가족이 영원히 함께
인봉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맺는 성스러운 성약에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자격을 지닐 수
있습니다.”(“속죄”,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35~36쪽)

앤 시 핑그리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
‘위태로운 때’에 얼마나 그분이
필요합니까! 그분은 힘과 안전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빛이며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 납니다. 우리 자신의 구주와
구속주로서, 그분은 팔을 벌린 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나아오도록’
권유합니다. … 그분이 항상 그 곳에
계시며, 자애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분의
팔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펼쳐져 있음을
간증드립니다.”(“그러므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택하라”,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10,
112쪽) ■



노후의 삶을

축복하는 선교 사업

부부 선교사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들이 봉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도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축복해 주세요

마크 크레인

그것은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첫 편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플로리다 주의 텔러해시 선교부에서 풋내기 선교사로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최근에 참석하신 대회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들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동반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남자의 웃음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그 소리를 따라 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아버지가 준비한 레슬링 시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무 살 난 어떤 장로가 네 아빠를 교실 맞은 편으로 뒤엎는 순간에 그 곳에 도착했다.” 라고 어머니는 썼습니다. 선교 사업으로 인해 아빠가 우울한 노신사로 변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선교 사업을 하는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축복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선교사로 봉사했을 때, 제가 가족에게 쓴 편지를 그들이 매우 좋아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이기적이었던 그 나이에 저는 제 가족이 저의 선교 사업 동안 저의 성공을 얼마나 열망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기도와 염려를 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선교사 소식을 듣고자 배달된 우편물을 찾고 들뜬 기분으로 편지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놀랐습니다. 저는 곧 우리의 가족 기도가 새로운 긴급한 일을 맡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더 이상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세요.”라는

포괄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축복해 주세요.”

제 부모님이 첫 선교사 부름을 받았을 때, 두 분 다 50대 중반이었고 은퇴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곧 침례 받은 회원과 그의 개종을 도운 회원 선교사(왼쪽)와 함께한 크레인 부부(오른쪽)



농한기라 부모님은 겨울 동안 주님께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름은 육 개월 간이었습니니다. 그 육 개월은 매우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두 분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강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신들의 어린 선교사 이들과 딸들에게서 보게 되는, 그와 똑같은 현저한 변화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일어났습니다. 가장 눈부신 변화는 부모님이 활기가 넘쳐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열정은 놀라운 강장제입니다. 부모님은 더 젊어 보였고 젊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해 동안 자신을 둔화시킨 몇 가지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더 많은 사랑을 지니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어머니가 말해 준, 아버지가 위대한 권능으로 복음을 가르쳤던 때를 저는 사적인 순간에 항상 소중히 할 것입니다. 사랑과 감탄의 목소리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빠는 정말 굉장한 사람이야.” 저는 또한 부모님의 선교 사업이 즐거운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선교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그리고 계속 터져 나오는 웃음 때문에 잠시 말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선교 사업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해 겨울에 부모님은 플로리다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부모님은 선교 사업을 육 개월씩 여덟 번을 더 하셔서 모두 열 번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여러 차례 가족 행사, 즉 출산, 유아 축복, 침례, 열 번의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어느 것도 희생은 아닌 듯합니다. 그 보상으로 오는 축복은 너무나 큼니다.

모범을 보이시는 부모님에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눌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은퇴 후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한 사랑하는 조부모만큼 그러한 가르침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몇 해 전 제 부모님이 버지니아 주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 큰 아들 매트는 캘리포니아 주의 한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트가 선교 사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평하는 편지를 집으로 보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공을 매트의 조부모에게 돌려야 합니다. 어떻게 육체적으로 가장 혈기 왕성한 시기의 젊은 장로가 폐 질환, 허리 통증 및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있는 60대 후반의

자신의 할머니가 다른 주에서 가가호호를 하고 있는데 불평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선교 사업으로 인해 일단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의 일은 끝났다는 저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받은 교육도 훌륭했지만, 부모님의 몇 가지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제가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거나 활동적인 회원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동안 부모님의 가장 심오한 성역은 그들 자신의 손자손녀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의 편지는 많은 복음 공과를 가르쳤습니다. 워싱턴 디시 도심의 지부에서 봉사한 것, 구도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랜드 캐년 밑바닥 부분까지 하이킹한 것, 가난한 미혼모, 부유한 증권 중개인, 어부, 도예가, 농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목사, 경찰관 및 노인들과 일한 것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보다 손자손녀들에게 모든 영혼의 가치를 가르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제 부모님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한 가장 위대한 것은 자신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선교사로서 그분께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

마크 크레이인은 유타 모건 스테이크 모건 제9와드의 회원이다.

놀라운 재회

아이나 아이버선

나다에 살고 있는 아내 마서와 저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흥분으로 가득찬 채 2주간

프로보의 선교사 훈련원에서

배우고,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긴 비행을 하여 1999년 6월

22일에 코펜하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라스무센 선교부 회장

부부가 공항에 우리를 마중나왔으며 그 다음 이틀간 우리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차가 주어졌고

오벤로에서 살면서 쇠데르보르그 지부의 선교사와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일요일 첫 성찬식에서 우리는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한 중년 신사와 악수를 하면서 “저는 아이나





아이버선 장로 부부가 선교사로 봉사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친구와의 놀라운 재회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버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벤트 비스고르입니다.”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32년 전 우리와 함께 캐나다에서 살았을 때 교회에 가입한 바로 그 벤트 비스고르였습니다. 그는 프레데리시아에서 살고 있으며 그 날 우리 지부에서 말씀하라는 지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재회였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그를 보내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967년에 벤트는 제가 일했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정부 고용 사무소로 왔습니다. 그는 일자리와 머물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아내와 저는 하숙인을 한 명 더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두 명의 하숙인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스벤 한센으로 신앙이 강한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스벤은 곧 벤트에게 몰몬경을 읽어 보라고 권했고, 벤트는 몰몬경의 결점을 찾으려는 의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런 결점도 찾지 못하자 그는 침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새 스테이크 건물에서 처음으로 침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 벤트가 덴마크로 돌아가자 우리는 그가 교회와 접하지 못할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덴마크에 있는 교회에

참석했으며, 공교롭게도 그 날은 금식 주일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실의 뒤쪽에 조용히 앉아있었는데 그 때 영어로나 덴마크어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간증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라져 버리기를 바랐지만 대신에 일어서서 어떻게 스벤 한센이 자신에게 몰몬경을 읽어 보라고 권했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가 스벤의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사람들은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스벤의 여러 친구들은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갑자기 벤트에게 여러 명의 새로운 친구가 생겼으며, 그는 편안해졌습니다. 그 후로 그는 수 년간 청년들과 함께 일했으며 덴마크 오르후스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했습니다.

마서와 저는 여태껏 벤트와 스벤을 알게 된 것이 무척 기쁩니다. 우리가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재회를 결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아이나 아이버선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아보즈포드 스테이크 칠리웨이크 와드의 회원이다.

치유된 마음과 가족 역사

브룬힐데 게르만



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의 동쪽 해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독일 사람입니다. 남편 지에그프리에드는 단치히에서 태어났고 저는 현재의 체코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을 때 우리에게는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떨어져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무척 힘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작은 집을 세 놓을 수 없어서 재정적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논의했으며 모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 문제는 쉬워졌습니다. 우리 둘 다 선교 사업을 해야 한다는 좋은 느낌과 확신을 받았습니다.

감독님이 우리에게 준 지원서에 우리는 가고 싶은 나라를 기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부름받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프라이베르크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젊어서 사용했던 체코어를 여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아주 조금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홍분되었습니다. 저는 동 유럽 회원들이 종종 프라이베르크 성전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992년 2월 25일에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성전 회장은 이리 스테데르플러였고 그의 부인 올가는 성전 메이트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많고 항상 다정했으며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프라이베르크에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친절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으며, 하나의 커다란 성전 봉사자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 중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행한 선교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회원들의 방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성전 회장의 부인은 러시아 말을 했으며, 저는 의식문 하나의 일부를 러시아 말로 배웠습니다. 이 회원들은 주님의 집에 대해 매우 경건한 태도를 지녔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오고 나갈 때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어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울었으며, 성전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회원들이 종종 프라이베르크에 왔으며, 처음에 제 남편은 그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신경이 과민했습니다. 남편의 할머니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폴란드의 한 수용소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함으로써 남편의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교 사업이 가져다 준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의 큰 축복은 마리에 스미도바라는 이름을 가진 체코 자매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저는 가족 역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제가 필요로 했던 교회 마이크로필름이 없었으며, 저는 자료를 얻기 위해 체코 공무원에게 편지를 쓸 만큼 체코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스미도바 자매님은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18개월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재정적인 상황이 좋아진 것에 놀랐습니다. 우리의 작은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녀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일년 후에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로 가서 일년간 성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부부 선교사들에게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년) 회장의 다음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행하십시오.” ■

브룬힐데 게르만은 오스트레일리아 남보 스테이크 카와나 워터스 와드의 회원이다.



교회의 감독들에게

“더 많은 부부 선교사에 대한 필요도 한결같습니다. 부부 선교사들은 전세계 곳곳에서 훌륭한 봉사를 수행합니다. 여러분(지도자들은) 부부들이 자원하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전임으로 주님께 봉사함으로써 하는 희생은 부부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풍성히 축복할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교회의 감독들에게”,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6월 19일, 27쪽.



게르만 부부는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성전 선교사로 봉사했다.



가족 강화

상황에 맞게 조절함

여러분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연구하고 활용하도록 통찰의 기회를 주는 연재 기사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움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¹

이상과는 다른 삶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모든 성인들이 행복하게 결혼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모두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고, 모든 가족 구성원은 건강하고, 순종적이며, 서로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이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각 개인은 역경을 경험하고, 지상에서 머무는 동안 시종일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족은 없습니다. 시련,



연약함, 병과 죽음 없이는 우리가 이 곳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년)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류를 완전한 존재로 본다면, 고통, 슬픔, 실패, 짧은 수명은 불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지상에 오기 전의 과거와 사후의 영원한 미래로까지 뻗어서 영원한 것으로 본다면, 모든 사건들은 올바른 견지에서 설명될 것입니다.”²

책임 전환

질병, 무력, 죽음, 이혼 및 다른 파괴적인 요인들은 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역할에 대한 개별적인 조절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추가로 가사일과 양육의 책임을 떠맡을 필요가 있거나, 또는 전업 주부인 어머니가 일터로 가야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새로운 책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혼란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확대 가족이 또한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원은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고, 허드렛일을 돕거나, 또는 아프거나 불구가 된 가족 구성원을 돌볼 시간을 내는 것에까지 이를지도 모릅니다. 확대 가족이 관련되는 정도는 상황과 가족의 필요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큰 시련이 닥치지 않더라도 확대 가족은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힘든 세상에서 가족을 지탱해 나갈 만한 강한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들 각자, 즉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조카 등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복음의 기반에 굳게 발목을 박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영원히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³

역경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가족이 시련과 그것이 초래하는 분열을 견뎌야 하는지를 의아해 할지도 모릅니다. 그 대답과 위안은 복음의 영원한 견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고린도후서 4:17)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칠십일 회장단의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줍니다. “역경은 의인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옵니다. 시련과 고난은 여러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기대에 어긋난 결혼, 결혼을 못한 것, 이혼, 장애아로 태어난 자녀, 자녀가 없는 것, 실직, 실수를 하는 부모, 빚나간 아들이나 딸, 건강이 나쁜 것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그 항목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안에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 같은 것들만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관점이 없다면
우리가 현재에서
직면하는 시련에
대해 의미있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구축하고 몸에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는 데 역경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구원의 계획, 전세, 현세 및 사후의 세계를 이해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 대립, 좌절, 고통, 고난, 죽음 등은 선택의지를 보존하고 영적인 발전을 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니파이후서 11장 참조) 한편 삶이 현세의 경험에 국한된다면 역경은 이해될 수 없으며 … 영원한 관점이 없다면 인간의 인간에 대한 몰인간성, 또는 지진, 홍수, 장애아 등에

대해 의미있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좌절이나 시험, 역경,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영광도 이 지구에 있어서는 안되길 소망한 주인공이 바로 사탄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⁴

속죄를 통한 고침

우리는 시험 받기 위해 이 지상에 왔지만, 성스러운 분의 도움을 받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병 고침은 낫는 것이나 짐이 가볍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 끝까지 인내하여 견딜 만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 치유받지 못하는 고통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장을 위한 주님의 방법이라면 그 고통을 극복할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배우길 원하십니다. …

“만약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다고 느끼면 여러분의 고통을 그분의 발 앞에 놓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겸손한 가운데 부지런히 구한다면, 주님은 신성한 권능으로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⁵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2.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ward L. Kimball(1982년) 편집, 38~39쪽.
3.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25쪽.
4.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생활”, *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20쪽.
5. “병고침을 받음”, *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7~8쪽.

음식 봉투와 20마르크

우리 가족은 배가 고팠다. 그러나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온 그 여인도 도움이 필요했다.

메이자 카아리나 마키넨

남지만 깨끗한 식탁보를 식탁 위에 펼치면서
나는 창 밖을 훑음 내다보았다. 1960년대에
남편과 나와 우리의 두 아이들은 핀란드의
작은 시골 마을 헤민키로에 살고 있었다. 나는 네 살배기
딸 마리카와 세 살 짜리 아들 페트리가 집에 있는 작은
잔디밭에서 개와 함께 노는 모습을 보았다. 남편은
정원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었다. 내가 식탁보를 펴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낯선 사람 한 명이
우리 집 현관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머리가
희끗했고, 다리를 약간 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전혀 가난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꽃 무늬가 있는 아름다운 드레스에
긴 앞치마를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불룩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그녀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불쑥 들어와서 미안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난
와야만 했어요.” 그녀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버터, 고기, 소시지, 그리고 갓 구운 빵이
테이블 위에 쏟아지고 이내 우리 아이들의 손에 들렸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금 우리 할머니가 되어 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마리카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 기쁘겠구나. 날 토이니
아줌마라고 부르렴!” 우리의 손님이 대답했다.

그 순간에, 나는 하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를 기억했다. “제발
우리를 도와 줄 누군가를 보내 주세요!” 토이니 아주머니는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음식뿐 아니라 사랑에
관한 교훈도 가져다주었다.

숲 옆의 작은 집

헤민키코에서의 생활은 소박했다. 우리는 아름다운 숲 옆에
있는 작은 집을 샀다. 나는 이제 막 교회에 가입했으나, 남편은
복음에 관심이 없었다. 우리는 자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정원에서 감자와 그 밖의 야채들을 길렀다. 나는 아이들에게 옷을
기워 입혔고, 우리의 옷도 수선했다. 핀란드 북부에 사시는 나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옷 꾸러미를 연락도 없이 보내
오셨고 우리는 그것에 매우 감사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빠졌다. 우리 가족은 철저하게
음식을 아껴야 했다. 때때로 남편과 나는 아이들이 조금 더 먹을 수
있도록 감자만 먹곤 했다. 이 때가 바로 내가 기도를 시작한
때였다. “주님, 제발 저희를 도와 누군가를 보내 주십시오!”

나는 직업을 찾았으나 그것은 그리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버스
비와 아기 돌보는 사람의 급료를 지불하고 나면 내 월급에서 남는
돈이 별로 없었다.

우리는 힘겹게 지냈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항상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페트리야는 종종 이렇게 음식을
축복하곤 했다. “이 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혹시 있으시면 소시지도 한 쪽 주실 수 있나요?”

그때 나는 더욱 간절히 간구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도움을 줄
누군가를 보내 주세요!”

나눌 것이 많음

이웃 마을 토이니 아주머니는 편안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으나 그녀는 전혀 평안하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가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항상 부유했고 모든 것을 풍족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여동생은 그렇지 못했다.

그녀의 여동생에게는 가족-남편과 세 살배기 쌍둥이 딸-이
있었다. 그녀의 제부는 직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얼마 후에는 여동생까지 결핵에 걸려 아프게 되었고, 절망에 빠진
그녀는 토이니 아주머니를 찾아와 20마르크라는 적은 액수의
돈과 딸들에게 가져다 줄 빵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토이니 아주머니는 도움을 주기를 거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이니 아주머니의 여동생은 결핵으로 죽었고 그녀의
남편도 부상으로 인해 죽었다. 그들의 세 살짜리 딸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입양되어 갔다.

매주 토요일의 기도

“내 동생이 죽고 어린아이들이 입양되어야만 했던 것은 나의
잘못이었어요.” 토이니 아주머니는 처음 그녀를 만난 날에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내
시야를 가렸고, 나는 그녀가 용서를 구하고 있음을 느꼈다.

“내 여동생이 바로 이 집에 살았지요.”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그녀는 내 눈을 쳐다보며 내게 20마르크를 건네주었다.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잠시 후에
그녀는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며 말했다. “자, 이제 일을 해
봅시다. 저녁 식사로 먹을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내가 나무를 좀
가져 올게요.”

그녀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왔을 때, 나는 다른 기도를 드렸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이 가득한 봉투와 20마르크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토이니 아주머니는 음식이 가득 찬 봉투와 20마르크를 가지고 왔다. 그녀는 한번도 자신이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곧바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따금 그녀는 하루나 이틀 정도 우리 집에 머무르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 수프를 끓이곤 했다. 그녀는 우리 집에 새 냄비와 프라이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사다 놓았다. 때때로 그녀는 우리의 빨래를 손으로 빨곤 했다.

토요일마다 토이니 아주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여러 주가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가끔 그녀에게 교회에 대해 말하곤 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함께 기도했다. 마리카와 페트리리는 그녀가 올 때마다 매우 행복해 했으며, 토이니 아주머니는 페트리에게 잊지 않고 소시지를 갖다 주었다. 그녀는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았고, 나는 아마도 우리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되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꽃과 사랑

토이니 아주머니는 삼 년 동안 정기적으로 우리를 방문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그녀는 오지 않았고 그 다음날에도 오지 않았다. 나중에 우리는 토이니 아주머니가 가게를 들러 우리의 조그만

오두막으로 오는 도중 길에서 쓰러지셨으며,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과 나와 우리 자녀들은 토이니 아주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 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우리가 그녀의 무덤에 꽃을 놓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표하고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맨 마지막에 현화하기로

결정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한 여인은 우리에게 다가와 자신이 토이니 아주머니의 딸이라고 소개했다. “여러분이 꽃을 제일 먼저 내려놓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여러분은 우리 어머니께 매우 소중한 분들이셨거든요.”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를 변하게 해준 힘이 무엇이었죠? 어머니는 매우 인색하고 이기적인 분이셨어요. 하지만 지난 삼 년 동안 어머니는 새 사람이 되셨어요. 어머니는 매우 부드럽고 인정 있는 분이 되셨죠.”

“그건 사랑이었어요.”라고 말하는 것 외에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가족과 성전 축복

처음 토이니 아주머니를 만난 이후로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가 음식 봉투와 함께 가져다준 교환에서 배우고 있다. 그녀는 나의 교사였다. 그녀는 어떻게 간절히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봉사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녀가 우리를 먹이기 위해 왔지만, 그녀 역시 마음에 필요한 음식을 취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의 장례식이 끝나고 20년이 흐른 뒤, 페트리리는 우리가 남편의 가게를 통해 토이니 아주머니의 친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우리는 그녀를 위해 성전 의식을 행했다. 오, 장막 저편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날은 얼마나 기쁜 날이 될 것인가!

토이니 아주머니는 사랑과 마음의 변화에 관한 고무적인 모범이었다. 나는 그녀가 가져왔던 음식이 가득 찬 봉투와 20마르크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그녀가 걸었던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 길은 구주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정해 주신 길이기 때문이다. ■

메이저 카이리나 마키넨은 핀란드 탐페레 스테이크 탐페레 제2와드의 회원이다.

엄마와 잘 지내기

니콜 레리오스 랜달

만

은 청소년들이 십대의 어느 시기 동안 부모님과 잘 지내지 못하는 문제를 겪는다. 열여섯 살의 나이에 나는 눈물을 흘리며 세차게 문을 닫고 나가지 않고서는 엄마와 결코 대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말다툼을 하면서, 나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고 쿵쾅거리며 내 방으로 뛰어 들어가 할 수 있는 한 세차게 문을 닫았다. 나는 침대 위로 몸을 던졌고 성난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렀다. 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갔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고칠 수 있지? 계속되는 이 말다툼을 어떻게 내가 멈출 수 있을까?”

그런 후 마치 물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내 방에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약할 때 위안 주시고 내 영혼의 불평 아시네 ...

맘의 고통 위로하시며 모든 축복 나눠 주시네.”(“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나는 성신의 임재와 나를 감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 날을 전환점으로 나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셨다. 음악은 내 인생의 커다란 부분이었고 나는 찬송가의 가사를 듣고 배우는 것으로 축복을 받았다. 그 가사는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때에 내게 위안과 힘을 주었고,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현재 엄마와 나는 가장 좋은 친구이다. 우리는 둘 다 우리 와드의 초등학교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나는 우리가 집에서 뿐만 아니라 부름에서도 함께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 ■

니콜 레리오스 랜달은 남아프리카 베노니 스테이크 스포링스 와드의 회원이다.

나는 이제 일요일을 아주 좋아해요

루실 사우트론

십

대였을 때, 나는 스포츠에서 학위를 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나는 주님께 연습이 토요일마다 있게 해 주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 드렸다. 그러나 우리 팀의 연습은 일요일로 계획되었다. 나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내 목표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교회에 가지 않느냐, 두 가지 모두가 나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나는 타협을 했다. 나는 2주 동안의 일요일에는 연습을 하러 가고 세 번째 주 일요일에는 교회에 갔다.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내 신앙으로부터의 약간의 탈선은 나를 죄로 이끌었고, 많은 고통을 초래했다.

내 잘못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다른 팀에 들어가기를 간구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다. 잘못은 이미 저질러진 것이다. 나는 문을 반쯤 열었고, 사탄은 그 문을 활짝 열어 버렸다. 마침내 나는 스포츠를 포기했다. 나는 두 가지 귀중한 것을 배웠다. 첫 번째는 주님과 타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커다란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신앙이 일요일 모임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믿는 것은 실수라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만일 단 한 끼만 먹고 다음 두 끼는 건너뛴다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일요일을 아주 좋아한다. 주님은 나의 공부와 건강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축복해 주셨다. ■

루실 사우트론은 스위스 베른 스테이크 바젤 와드의 회원이다.

루실 사우트론은 스위스 베른 스테이크 바젤 와드의 회원이다.

신앙: 빛과 열매



제일회장단 정원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전세계에서 교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갖는 데 있어 교회 회장의 지위와 제일 회장단 정원회의 지위는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이 계시들에 명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되던 때부터 전체 교회를 감리하는 지정된 하나의 감리 권세가 있었습니다. 1830년 4월 6일에, 그것은 “이 교회의 첫 장로가 되도록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된 조셉 스미스 이세에게”(교리와 성약 20:2) 주어졌습니다.

그 뒤 이 년이 채 안 되어, 1832년 1월 25일에 그는 “대신권의 회장단에” 성임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81:2; 또는 교리와 성약 82편 참조)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계시들로 회장과 제일회장단 정원회의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신권 직분의 회장의 의무는 온 교회를 감리하는 것이요, 모세와 같이 되는 것이라 … 선견자, 계시자, 번역자, 선지자가 되어 교회의

머리 위에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가지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07:91~92)

그리고 다시

“나는 너희에게 나의 종 조셉을 주어 나의 온 교회를 관장하는 감리 장로로, 번역자, 계시자, 선견자, 선지자로 삼노라.

“나는 그에게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과 나의 종 윌리엄 로를 보좌로 주어 이들로 한 정원회와 제일회장단을 구성하게 하여, 온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노라.”(교리와 성약 124:125~126)

“멜기세덱 신권에서는, 세 사람의 감리 대제사가 그 무리에 의해서 선택되어 그 직분에 지명 성임되고 교회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되어 교회의 제일회장단 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07:22)

계시에 의해 밝혀짐

전세계에서 교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갖는 데 있어 교회의 회장의 지위와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지위는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이 계시들에 명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동시에, 십이사도 정원회는

“앞서 언급한 세 회장과 권세와 권능이 동등한” 존재로서 언급되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고든 비 힝클리 회장(가운데),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왼쪽), 그리고 제2보좌 제임즈 이 파우스트(오른쪽)은 10년 이상 제일회장단에서 함께 봉사해 왔다.

107:24)

칠십인은, 마찬가지로, “방금 언급한 열두 명의 특별한 증인 곧 사도들의 정원회의 [권세]와 권능[에 있어] 동등한 정원회를 구성”(교리와 성약 107:26)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들은 권세에 있어서 동등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면서, 조셉 필딩 스미스(1838~1918년)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람들 가운데에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뿌리박힌 생각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것은 십이사도가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동등한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이사도 외에 다른 회장단이 없을 때 이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감리하는 권세를 지닌 세 명의 감리 장로들이 있는 한, 십이사도의 권세는 그들의 것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권에는 두 개의 동등한 권세와 두 개의 동등한 정원회가 평행을 달리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머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Elders’ Journal, Nov. 1, 1906, 43)

마찬가지로, 십이사도의 지시 아래 봉사하는 칠십인은 오직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어떤 이유로 해체될 경우에만 권세에 있어 동등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회장단 정원회가 없었던 긴 기간이 있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죽은 후, 감리하는 권세는 브리검 영을 회장으로 하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3년 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브리검 영이 사망한 후에도, 권세는 다시 십이사도 정원회로 되돌려졌고 그렇게 3년 2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존 테일러가 사망한 후에는 1년 9개월이 지나서 제일회장단이 재조직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일회장단의 재조직은 회장의 서거 후 며칠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경우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선임 회원이 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선임 순위는 사도 직에 성임된 날짜에 의해 결정됩니다.

책임을 위임함

제일회장단이 감리하고 교회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 관할권을



저는 우리의 훌륭한 컨퍼런스 센터의 건축이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 나타내신 뜻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가지는 한편, 전세계 곳곳에서 교회의 광대한 업무들을 진척시키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권세와 책임의 위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십이사도는 순회 감리 고등 평의회라, 하늘의 제도에 따라 교회의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주의 이름으로 직분을 수행하며, 교회를 세우며,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제반사를 조정하여야 하나니, 먼저는 이방인에게요 그 다음은 유대인에게로다.

마찬가지로 “칠십인은 십이사도 곧 순회 고등 평의회 지시 아래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 교회를 세우며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제반사를 조정하여야 하나니”(교리와 성약 107:33~34)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로서,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교회의 종무에 대한 책임의 많은 부분이 십이사도와 칠십인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지상의 모든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교회의 회원들을 참여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의 집이 건축, 유지되어야 하고, 교회의 서적이 번역되어야 하며, 출판물을 인쇄하는 등, 현세적인 성격의 많은 다른 문제들이 선행됩니다. 감리 감독단에게는 이에 대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다시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감리 감독단은 회원들의 심일조와 헌물을 수집하는 체계와 방법들을 확립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복지 필요 사항을 돌보며 다른 많은 일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경영 구조로,

교회는 전세계 곳곳에서 그 광대한 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갑니다. 교회 조직은 현세적인 일들을 다루는 직원들을 늘리고 종무를 맡는 역원으로서의 칠십인 기구의 확대를 통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더 말씀드리자면, 신앙개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1:9)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계속되는 계시를 믿습니다. 교회 전체를 위해 계시를 받는 것은 교회 회장의 독특한 책임입니다. 다른 모든 역원은 자신의 특정한 책임과 의무에 관해서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계시는 오직 회장에게만 그리고 회장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계시에 의한 지시

우리는 교회 회원들의 의결에 의해 경전으로 받아들여진 표준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 이후로 다른 계시가 내려왔고, 오늘날도 내려오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봉사한 기간에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부가 된 그룹인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로서의 3년 반,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의 20년, 그리고 제일회장단의 일원으로서 24년, 회장으로서의 지난 10년이 포함됩니다. 저는 제가 계시의 결과라고 확신하는 많은 변화들을 보아 왔습니다.

이따금, 저는 언론 매체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의 항상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의 선지자에게 계시는 어떻게 옵니까?”

저는 계시가 과거에 왔던 것처럼 지금도 온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관해, 저는 이 언론 매체 기자들에게 바알의 제사들과 한 시합에 이어 엘리야가 한 경험을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성전들의 건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백성에게 내린 축복은 엄청났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몇 해 전,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은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훌륭한 컨퍼런스 센터의 건축이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 나타내신 뜻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 건물의 건축은 대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역사적인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수백만 달러가 소요되는 이 훌륭한 복합 강당 건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노후된 태버네클의 내진 설계와 다른 리모델링 작업으로 인해 이 건물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컨퍼런스 센터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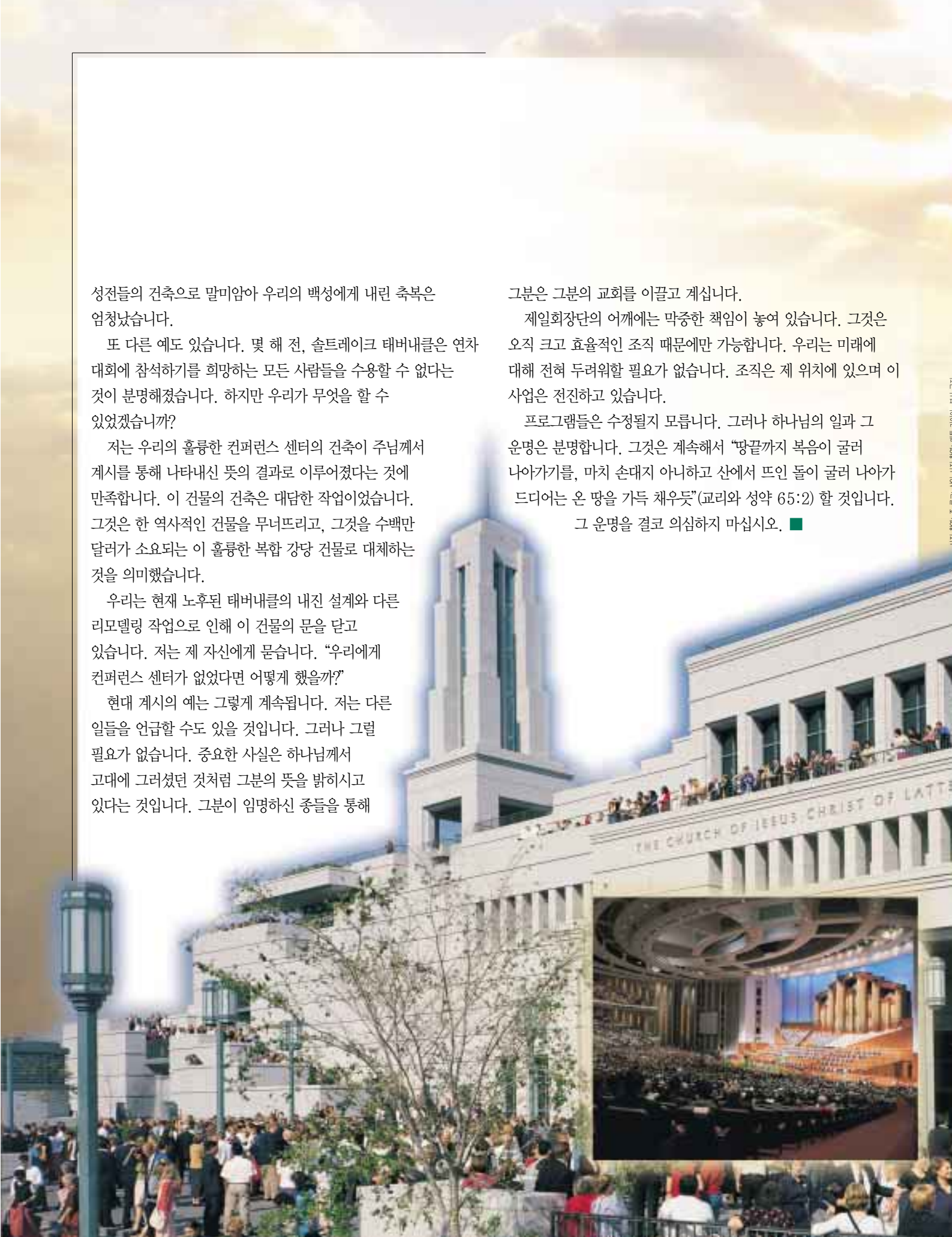
현대 계시의 예는 그렇게 계속됩니다. 저는 다른 일들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대에 그려셨던 것처럼 그분의 뜻을 밝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명하신 종들을 통해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제일회장단의 어깨에는 막중한 책임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크고 효율적인 조직 때문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직은 제 위치에 있으며 이 사업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은 수정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그 운명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굴러 나가기를,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나아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우듯”(교리와 성약 65:2) 할 것입니다.

그 운명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



마음의 선물

루시아 리베로 로메로

19 96년 12월에 나는 멕시코 몬테레이 북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내 동반자는 유타에서 온 젊은 자매였다. 그때는 내가 자녀들과 손주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는 첫 번째 성탄절이었고, 나는 내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누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 곳에 있는 나로서는 그 일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보통 때보다 조용하자 내 동반자는 나를 포옹하며 말했다.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저녁 식사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사랑스런 얼굴을 보며, 마치 내 아이들과 손주들이 나를 보듯이 크나큰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아름다운 파란 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나를 위해 저녁 식사로 준비한 음식은 따뜻한 계피차였다. 그러나 내게는 대단한 진미였다. 나는 마흔 여섯 살이었고, 그녀는 겨우 스물 한 살이었다. 나는 항상 주는 것에만 신경을 써 왔고, 받는 것에 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선교사인 우리들은 남에게

줄 돈이 없었기에, 그 대신 사랑과 봉사를 베풀었다. 나는 동반자가 모르게 그녀를 추위로부터 막아 줄 한 쌍의 장갑과 목도리를 샀다. 그것이 그녀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의 모든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어떤 것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봉사였다.

그 날 밤 그녀의 선물은 성탄절이란 우리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일부, 즉 우리의 마음속의 느낌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매우 수줍게 나는 내 사랑하는 동반자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꺼냈다. 그녀의 커다란 사랑에 비할 때, 내가 그녀를 위해 산 선물을 주는 일은 매우 보잘것없이 느껴졌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매해 성탄절마다, 나는 자녀 및 손주들과 함께 훌륭한 성탄절을 보냈다. 나는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는 거룩한 성탄절기에 대해서, 내

내 동반자의 선물은 성탄절이란 우리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일부, 즉 우리의 마음속의 느낌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가

족 중 한
사람이
봉사를

실천할 때마다, 우리는
지푸라기 하나를 구유에
넣었다.



동반자에게는 사랑에 대한 그녀의 모범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할 것이다. ■

루시아 리베로 로메로는 멕시코시티 테나요 스테이크
후아레스 와드의 회원이다.

구유에 넣을 지푸라기

수 존스

우 리 아이들의 이해력이 우리
가정의 보호벽을 넘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성탄절은 점점 더 산타와 세속적인 성탄절
축제에 관한 것이 되어 갔다. 이 흥분과
기대가 커 갈수록, 우리 구주의 탄생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다. 남편인 밥과 나는 가족
전체에게 뜻깊은 방식으로 우리의 축하에
참된 성탄절의 정신을 되살려 보고자
노력했다.

어느 해에 우리는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고 수년 동안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게 해 준 한 가지 전통을
세웠다.

우리는 12월 첫째 주 가정의 밤 시간에
성탄 절기를 기념하는 방법으로 봉사

하는 것에 중점을 둔 공과를 했다. 우리는
마분지로 구유를 만들고 지푸라기가 가득
찬 상자를 마련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봉사를 실천할 때마다, 우리는 지푸라기
한 가닥을 구유에 넣었다. 아이들은 의미
깊은 친절찬 행동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아기 예수의 구유를 채울
지푸라기를 얻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해에 구유를 세 번이나 채웠다.

밥은 한 가게의 성탄절 장식품
진열대에서 우연히 고풍스런 초롱을
발견했다. 밥은 그것을 샀고, 그 초롱은
우리의 종교적인 축하 의식의 정점을
이루는 행사에 영감을 제공해 주었다.

성탄절 전날 밤에 가족 파티와 저녁 식사가 끝나면, 아이들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거실에 꾸며 놓은 탄생 장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층의 가장 큰 침실에 모였다. 우리는 집 안의 모든 불을 끄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만왕의 왕을 보기 위해 순례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전통적인 캐롤들을 부름으로써 여행을 준비했고, 그런 후 “주 믿는 신도여”를 부르며 거실을 향해 나아갔다. 우리의 길을 밝히기 위해 붉은 촛불이 깜박거리는 초롱을 들고 앞장을 섰다.

작은 마구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캐롤을 몇 곡 더 불렀다. 그런 후 아기 예수께 구유를 선물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달 내내 베푸는 사랑의 선물을 의미하는 지푸라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하길 원하는 사람은 구주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 그 날 저녁 주님의 영이 우리 가정과 마음에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다음날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긴 했지만 우리가 탄생을 축하 드리는 아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느끼며 차분하고 조용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매년, 우리가 성탄절 준비로 정신없이 분주하게 될 때, 우리는 몇몇 의미 깊은 예배의 순간들로 인해 물질주의가 어느 정도 수그러지게 될 것을 알기에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 성탄절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면서도, 아이들은 매년 성탄절 전날 밤에는 새로 태어난 왕과 보내는 특별한 시간을 고대한다. ■

수 존스는 유타 바운티폴 스테이크 바운티폴 제31와드의 회원이다.

명절에 직장을 잃었다

아이리스 레맨

2001년 1월에 내 남편 피터는 직장을 잃었고, 그 후 곧 우리의 셋째 아이가 태어났다. 피터가 500마일(800km) 떨어진 곳에서 직장을 찾게 되자, 우리는 매우 먼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가 그 일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의 경제적 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고, 우리는 겨우 집세를 내고 식료품을 살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 우리의 작은 음식 창고는 금세 바닥이 났으며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럴 때 피터의 고용주는 우리에게 기대치 않았던 “성탄절 보너스”를 주었다. 피터의 부서에 있는 모든 사원들에게 한 달간 일을 쉬라는 발표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남편은 다시 일을 쉬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피터는 몇몇 회원들로부터 일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는 성탄절 때에도 잊혀지지 않았다. 어느 날 자매 선교사들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우리 와드의 한 가족을 대신해 선물 꾸러미를 전해 주었다. 그것을 풀자 아름답게 포장된 많은 선물들이 나왔다. 각각의 선물에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또한 돈이 든 봉투도 발견했다—마치 그 선물들로는 충분치 않았던 것처럼!

성탄절 전날 밤에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현관에 놓여 있는 꾸러미에는 또다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멋지게 포장된 선물들이 들어 있었다. 우리는 매우 기뻐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작은 기적들에 대해 감사드렸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그곳에 겨우 5개월 밖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준 회원들에게 감사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에 누가 우리를 도와 주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구주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마태복음 25:35) ■

아이리스 레맨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스테이크의 잘츠부르크 와드의 회원이다.



클램 차우더 이야기

개리 비 런드버그

해 마다 성탄절 전날 밤이 되면
아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클램 차우더(우유,
감자, 그리고 조개가 든 걸쭉한 수프)를
만든다. 우리가 클램 차우더를 명절
음식에 더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구주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우리는 몇 년 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어난 클램 차우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날은 월요일 저녁이었고 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가질 재미있고
평안한 가정의 밤을 기대하면서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뒷문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아이들이 잘 놀고 있고
식탁에는 저녁 식사로 먹을 음식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내 아내 조이는 내가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바쁜
하루를 보냈으며, 이제 우리 아이들은
모두 그녀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

우리가 아이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은 모두 그 날 저녁에
끝내야 할 숙제가 있는 것 같았다. 조이는
지쳤고, 우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으며, 가정의 밤도 해야 했다. 더욱이
조이는 다음날 상호부조회 점심 모임에
참석하는 60명의 자매들을 대접할 클램
차우더를 준비하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일을 분담했다. 조이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나는 아이들의 숙제를
도왔으며, 짧게 가정의 밤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아이들을 재우는 동안

조이는 클램 차우더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9시 반쯤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내가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조이는 클램
차우더에 필요한 재료들을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다. 차우더를 만드는 과정은
꽤 길고 복잡하다. 차우더는 적당한
온도에서 계속해서 저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타게 된다.

조이는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에
출발해야 했으므로 차우더를 그 날 저녁에
끝내야 했다. 나는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녀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전자 공학 과목을 공부했다.

11시 30분쯤 조이가 차우더를 담은
작은 그릇을 들고 방에 들어왔다. 나는
회로판에 납땀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나가고
없었다. 거기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기막히게 맛있어 보이는 수프가 한 그릇
놓여 있었다.

나는 환상적인 맛을 기대하며 수프를
한 숟가락 가득 떠서 입에 넣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 입맛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끔찍했다! 수프에서는 탄
맛이 났다. 분명 이럴 수는 없었다.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나는 아내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할 준비를 하고 용기를
내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절망하고 지친 모습으로 부엌에 앉아
있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이걸 대접할 순 없어.
타버렸군.”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고 울기
시작했다. “당신이 모르길 바랬어요.
계속해서 짓고 또 저었는데 갑자기 검은
알갱이들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재빨리

불을 끄고,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다른 그릇에다 옮겨 담았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그녀는 절망적으로
보였다. “너무 피곤하고 시간도 너무
늦었어요. 우리에게 재료를 다시 살 돈도
없고요. 어떡하죠?”

나는 아내를 팔로 감싸고 그녀가
잠자리에 들어가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당근 껍질을
벗겨서 잘라 놓아야 하거든요.” 나는
그녀를 침실로 데려다 주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다.
내가 문을 닫고 나올 때 그녀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요리책을 들고 색인에서 “타버린
우유 음식”을 찾아보았다.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았다. 나는 심지어 온갖 종류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밤샘 라디오
방송에 전화 해보려는 시도도 했다.
전화는 연결 되지 않았고, 나는 다시
주방으로 가서 당근 껍질을 벗겼다.
너무나 당황스런 시간이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오직
하나의 선택만이 남았다. 나는 어두운
거실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나는 이런 사소한 문제에 관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약간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은 조이에게 전혀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기도를 시작했다. “매우 큰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 아내에게 매우 큰 것이며, 그래서 제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는 충실한 사람이고, 자신이 요청 받은 모든 것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제발, 아버지시여, 아침이 되기 전에 클램 차우더에서 탄 맛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런 사소한 일을 부탁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아내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6시 30분쯤 아내는 일어나 침대에 앉아 말했다. “어찌죠?” 나는 그녀에게 당근은 다 손질해 놓았으니, 옷을 갈아입고 가서 차우더의 맛을 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릇에서 작은 양을 덜어 내어 데웠다. 차우더를 맛본 그녀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까만 알갱이들도 없고 탄 맛도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내가 한 일을 말했고, 우리 둘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깨달았다. 우리는

클램 차우더를 맛본

아내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까만 알갱이들도 없고 탄 맛도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한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를 드렸다.

주님은 어떤 과정을 사용하신 것일까? 나는 모른다. 왜 그분은 이 간구를 들어주셨는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전부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마태복음 7:7) 그리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리고 그분은 축복을 내려 주셨다.

그러고는 그 클램 차우더를 자매들에게 대접했다. 그들은 모두 음식이 너무나 맛있다고 칭찬했고

요리법을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구주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대해 염려하시고 그분에게 작은 일들조차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상기시키기에는 성탄절 절기가 일년 중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

개리 비 린드버그는 유타 주 에저몬트 스테이크 에지몬트 제14wards의 회원이다.



알고 계십니까?

“저 멀리 유대의 넓은 들에”

“저 멀리 유대의 넓은 들에”는 영어 찬송가에서 유일하게 후기 성도가 지은 성탄절 노래이다. 1869년에 유타 세인트 조지에 사는 존 맥팔레인은 자신의 합창단이 성탄절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캐롤을 부르기를 원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한 곡도 만들지 못하던 차에, 존은 어느 날 밤 꿈에서 깨어나 “저 멀리 유대의 넓은 들에”의 가사와 멜로디를 썼다. 이 아름다운 찬송가는 우리의 성탄절 캐롤들에 더해졌으며 교회 안팎에서 유명하다.(찬송가, 128장 참조)

진정한 친구란?

친구들은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이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영원한 선물

“선물을 주고 받는 이
절기, 성탄절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아들은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우리 각자는 영원한 삶이라는 선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The Son of God,” Ensign,
1992년 12월호, 6쪽.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반원이나 정원회의 회원들에게 책임을 위임한 후에, 여러분은, 지도자로서, 도움과 지지를 주어야 한다. 그들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해 주고,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라. 그들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일이 항상 당신의 방식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이끈다면, 여러분은 모든 이가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발전시키도록 돕게 될 것이다.

도와 주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으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는가? 이 퀴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더 좋은 친구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각각의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묘사한 답을 골라 보자. 점수를 알아보려면 끝에 있는 점수 매기기를 사용한다.

1. 여러분은 재미있는 파티에 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집에 가길 원한다. 그러자 여러분의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 ㄱ. 맞아. 집에 가는 게 낫겠어. 내가 어머니께 전화해서 차를 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라고 말할게.
 - ㄴ. 정의의 사자라도 된 것처럼 그러지 마. 조금 마시는 건 아무에게도 피해가 안 돼.
 - ㄷ. 좀 더 있으면서 즐기지 그래? 넌 마실 필요 없어.
2. 여러분은 데이트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여러분은 몇 달 더 있어야 열여섯 살이 된다. 여러분이 데이트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여러분의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 ㄱ. 너 제정신이니? 넌 가야만 해! 이젠 일 년 중 가장 큰 무도회라고!
 - ㄴ. 좋아. 하지만 넌 가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이번만 예외로 할 순 없겠니?

ㄷ. 그게 네가 정말 원하는 거라면 좋아. 네가 믿는 것을 지키는 게 좋을 거야.

3. 학교에서 여러분이 지리 과목 숙제를 내야 하는 날이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수업 시작 전에 답을 베끼고 있다. 여러분은 숙제가 있다는 것을 깜빡했다. 그러자 여러분의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 ㄱ. 걱정하지 마. 숙제 하나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야.
 - ㄴ. 서두르면, 수업 전에 끝낼 수 있을 거야.
 - ㄷ. 서둘러. 여기 내 숙제 있어. 내 것을 베껴.
4.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는 영화를 고르며 비디오 가게에 있다. 친구는 나쁜 내용이 있는 영화를 고른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이 왜 부적절한 매체를 보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친구가 말한다.
 - ㄱ. 그래, 다른 걸 고르자.
 - ㄴ. 우리 집에서 보면 네 부모님이 모르실 거야.
 - ㄷ. 괜찮아, 이번 한 번뿐이야. 이 영화에 정말 나쁜 건 하나도 없어.

점수 매기기

- | | | | |
|----|-----|-----|-----|
| 1. | ㄱ=3 | ㄴ=1 | ㄷ=2 |
| 2. | ㄱ=1 | ㄴ=2 | ㄷ=3 |
| 3. | ㄱ=2 | ㄴ=3 | ㄷ=1 |
| 4. | ㄱ=3 | ㄴ=1 | ㄷ=2 |

10~12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지해 주는 훌륭한 친구들을 갖고 있다.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지지하면서 여러분도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한다.

7~9점: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에 대해 염려하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면 그들은 아마도 이해할 것이다.

4~6점: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이 복음대로 살고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을 고양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존중하며 그것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친구들을 사귀도록 한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2004년 8월호에 실린 조셉 비 워스킨 장로의 “우리가 기도를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은 정말 좋은 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 말씀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루이스 마리오 마르셀로 카르바할 아르세, 칠레
쿠리코 스테이크 테노 지부

영감의 원천

리아호나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지도서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총관리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인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자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충고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저의 사랑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젊은이들도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알텐 엔고, 17세, 콩고 공화국 브라자빌 스테이크
킨사운디 와드

더욱 확실한 간증

리아호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달 리아호나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리아호나를 받는 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 내내 각각의 메시지를 좀더 천천히 읽습니다. 저는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 회원들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읽는 것을 즐기며, 그들은 저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불러넣어 줍니다.

블랑카 카리요 데 가르사, 멕시코 몬테레리
모데르나 스테이크 케레타로 와드

선지자들을 공부하세요

저는 리아호나 2004년 6월호에 실린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으로 공과를 가르치기 위한 준비”라는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과들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었고 이 책들은 저의 장서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길버트 스타에펠스, 벨기에 안트베르펜 스테이크
안트베르펜 제1 와드

길잡이 불빛

제가 침례를 받았을 때 선교사들이 제게 리아호나 한 권을 주었고 그 후로 한 해도 빠짐 없이 저는 리아호나를 구독해왔습니다. 리아호나는 제 인생에서 훌륭한 길잡이 불빛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리아호나를 통해, 특히 제일회장단 메시지와 기타 교회 직원들의 글속에서 저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주님은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로사리오 에리사 고메스 카스틸라,
아레키퍼 페루 사마콜라 스테이크
베라운데 와드

리아호나를 선물로 주세요

교회에 관해 종종 질문을 하는 직장 친구들과, 여러분이 가정 복음 교육을 하는 활동이 저조한 가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가족, 새로운 언어를 배운 귀환 선교사들, 그들은 리아호나 구독권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혹은 선물하기 위하여 리아호나를 아래에 나와 있는 어느 언어로든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습니다.(언어에 따라 발행 회수는 다릅니다.): 한국어, (동)아르메니아어,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군도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리랑카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아이티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히티어, 태국어, 텔러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힌두어.

정기 구독 및 주문 관련 정보를 원하시면 소속 와드나 지부 지도자들 또는 지역 배부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친구들





기쁨에 찬 절기

성탄절은 일년 중 정말 멋진 때입니다. 성탄절은 구주의 탄생뿐 아니라 구주의 일생과 그분께서 보이신 모범을 기리는 때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행복을 찾는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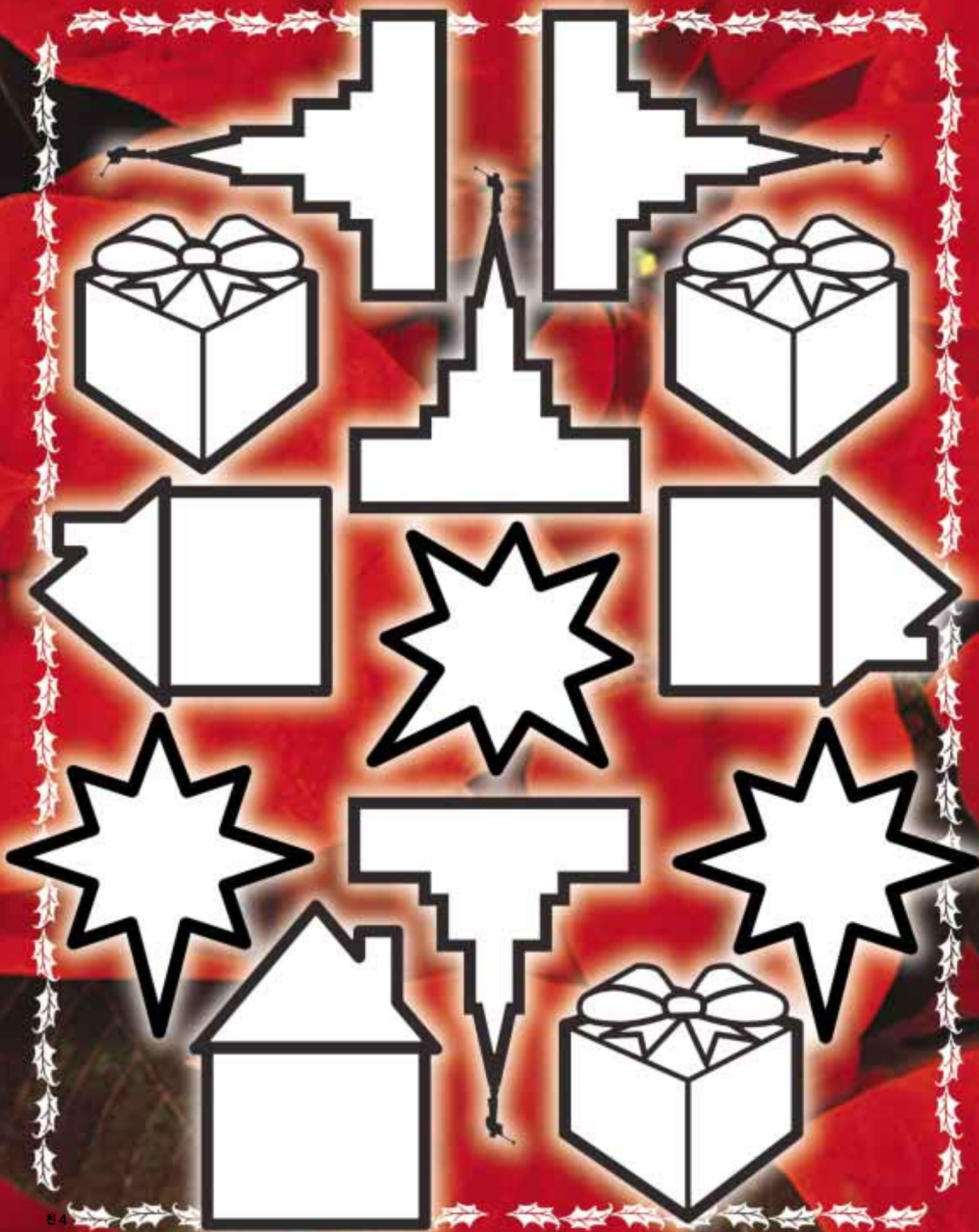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하신 것처럼 도움의 손길을 뻗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병들거나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거나 친구 없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필 때,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성탄절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성탄절이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

사랑으로,
제일회장단



BACKGROUND © PHOTOSPIN; 오른쪽: 모델 사진 촬영: 존 루크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일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4: 7)

마가렛 에스 리퍼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여러분은 자신을 기쁘게 한 특별한 선물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은 감사를 표시했나요?

올해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멋진 선물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과 구원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어린이 노래책, 86)의 다음 가사를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따르리
하늘의 목표대로 살아 왔네
날 때부터 주의 빛 찾아 지상에
훌륭한 집 갖게 되었네

하늘 아버지의 계획에는 많은 은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얻고 한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선택의지의 은사로, 우리는 선이든 악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할 것이며 우리가 선을 택한다면 우리는 영생의 은사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계시, 기도, 경전, 신권, 성약, 그리고 성전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보여 드릴 수 있나요? 찬송가의 다음 부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계획 따르면
말씀과 사랑 주시리
일하고 기도하리
항상 주의 길 따르리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포함 때
지상이나 하늘에서
나 항상 행복하리

축복의 선물 상자

포장된 선물을 나타내기 위해 작은 상자나 봉투에 색칠한다. 그런 다음 친구들 4쪽의 모양들을 오려낸다. 집 모양 위에 여러분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축복들을 적는다. 별 모양 위에 구주로부터 받는 축복들을 적는다. 성전 모양 위에 교회의 회원으로서 받은 축복들을 적는다. 선물 모양 위에 적을 다른 축복들을 생각해 본다. 모든 모양들을 색칠한 상자나 봉투 속에 넣는다. 가정의 밤을 갖는 동안에 모양들을 서로 나누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는 은사들에 대해 토론한다.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뜯어 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웹 사이트 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한다

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안

1. 올해 우리는 구원의 계획과 그로 인한 많은 축복들에 대해 배웠다. 월별로 배운 원리들과 그에 따르는 축복들을 요약해 본다. 전세계의 어린이들은 구원의 계획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상기시켜 준다. 가능하다면, 귀환 선교사를 초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복음대로 생활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경험을 나누도록 한다. 어린이들을 5, 6명씩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동그랗게 둘러앉도록 한다. "축복 기억하기" 게임을 한다. 첫 번째 어린이가 "저는 _____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두 번째 아이는 "첫 번째 어린이가 말한 것을 다시 말하고 자신의 것을 합쳐 _____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한다. 종이를 만든 별달을 나누어 주고 어린이들에게 축복을 그리도록 한다. 각 별들의 한 모퉁이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실을 꿰어 동그랗게 고리를 만든다. 어린이들이 그들의 성탄절 장식을 그들의 가족들과 나누도록 한다.

2.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구주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음 성구들을 들려준다. - 제1그룹: 힐라맨서 14:1~7; 제3니파이 1:4~21; 제2그룹: 누가복음 2:1~17. 각 그룹에서 한 명의 어린이를 선택하여 참조 성구들을 읽게 하고 다른 어린이들은 그 이야기를 역할 담당극으로 나타내게 한다. 제1그룹은 레이먼인 사무엘의 이야기를, 제2그룹은 구주의 탄생을 연극으로 나타내게 한다. ●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생애에서 음악의 은사

맥케이 가족들은 음악을 사랑했고 악기 연주를 배웠습니다. 맥케이 회장의 아들 로렌스는 바이올린을 아름답게 연주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가!



수년 후, 로렌스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는 생계를 위해 그의 바이올린을 팔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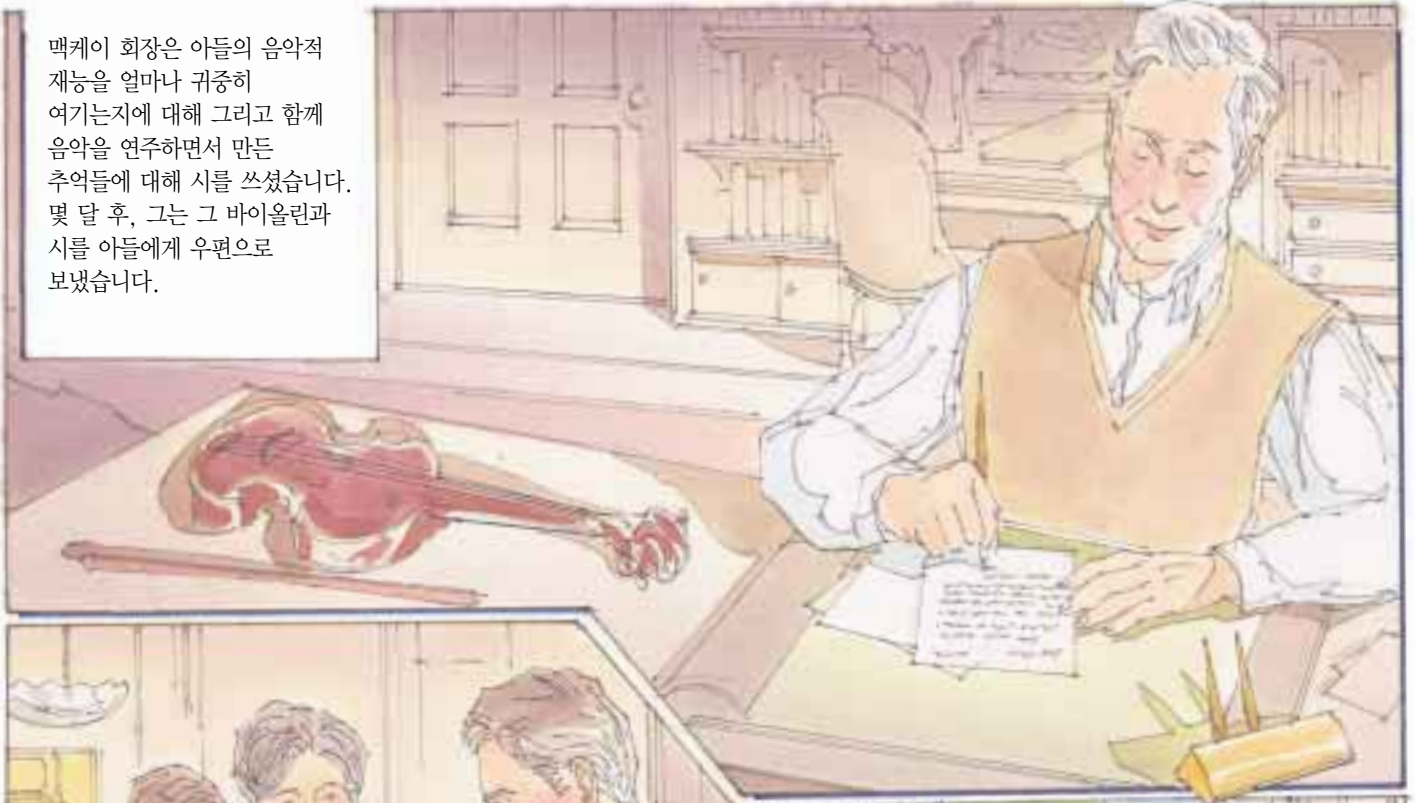
아버지, 밀드레드와 저는 돈이 필요했지만 저는 제 바이올린을 포기하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은 종종 제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맥케이 회장은 지체없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 아들이 최근에 당신에게 이 바이올린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이올린을 다시 사고자 합니다-제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이 바이올린이 저희 가족을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맥케이 회장은 아들의 음악적 재능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에 대해 그리고 함께 음악을 연주하면서 만든 추억들에 대해 시를 쓰셨습니다. 몇 달 후, 그는 그 바이올린과 시를 아들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것 봐, 밀드레드, 아버지에게서 온 소포야. 무엇이 들어 있다고 생각해?

로렌스는 그것이 자신이 사랑했던 바이올린임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밤 늦게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곡들을 모두 연주했고, 그의 아버지가 주신 귀한 선물과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데이비드 로렌스 맥케이 씀(1989년, 182~183쪽에서 발췌).





성탄 강림절 화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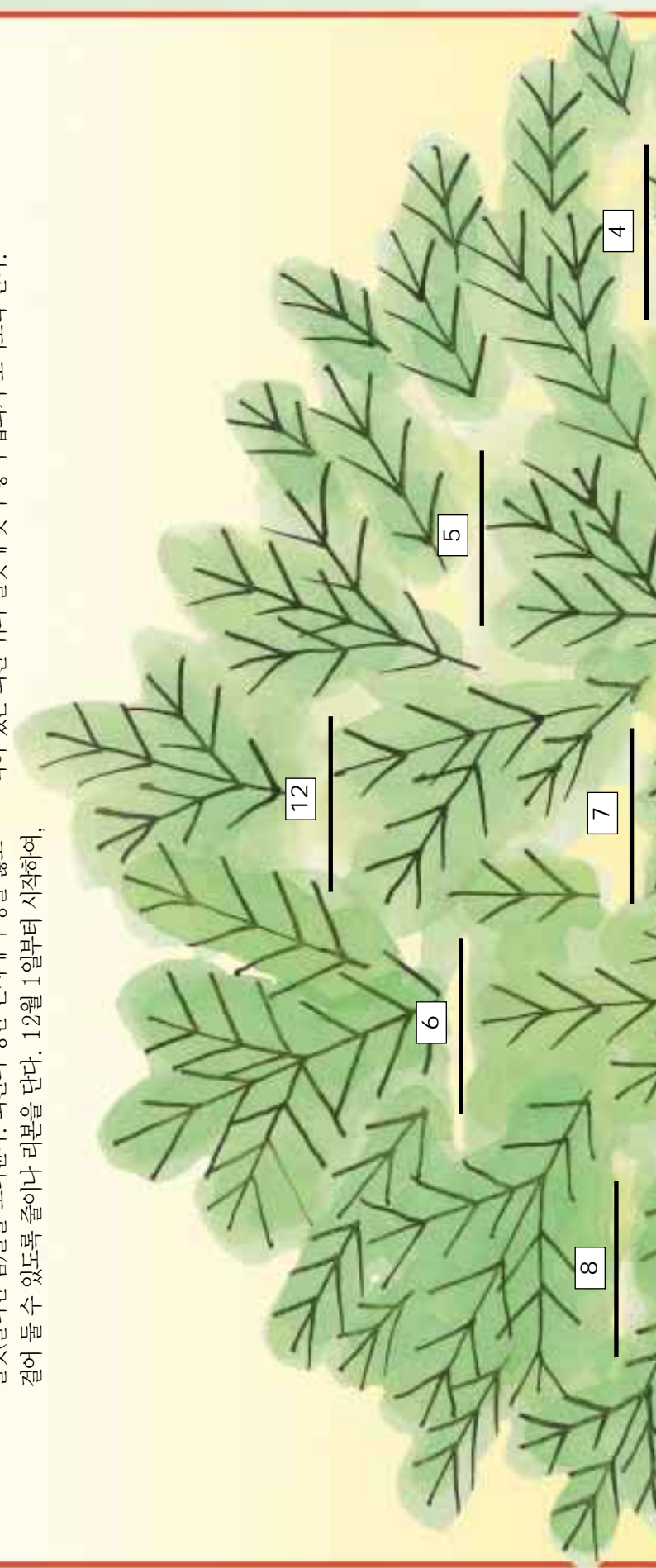
엘리즈 블레이크



유의 사항

친구들 8쪽, 9쪽, 16쪽을 뜯어 내어 두꺼운 종이 위에 붙인다.
숫자가 새겨진 삽화들과 화환, 그리고 굵은 검정색 선으로 표시된
슬릿(갈라진 틈)들을 오려낸다. 화환의 상단 근처에 구멍을 뚫고
걸어 둘 수 있도록 줄이나 리본을 단다.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각 날짜에 해당하는 숫자가 새겨진 삽화를 찾아낸다. 삽화에 적혀
있는 해당 날짜의 해야 할 활동을 읽고 그 날 그것을 행한다. 해당
날짜에 해야 할 활동을 마친 후에는 삽화를 날짜와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화환 위의 슬릿에 꽂아 넣어 삽화가 보이도록 한다.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뜯어 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베껴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한다.

3

2

15

16

1

21

17

22

14

24

9

11

20

23

18

10

13

19

12

15

16

17

18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중요한 장소들

브리튼니 슈트셀라
교회 잡지



1805년 - 버몬트 주 샤론

조셉 스미스는 성탄절을 불과 이틀 앞둔 1805년 12월 23일 버몬트 주 샤론에서 태어났다. 그는 그의 아버지 조셉 스미스 일세,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농장에서 살았다.

1816년 - 뉴욕 주 팔마이라

조셉의 식구들은 조셉이 열 살 되던 1816년 팔마이라로 이사했다. 조셉은 자라면서 종교에 무척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열네 살 때 그는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쭙어 보기로 결심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에게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하셨다. 1823년, 조셉이 열일곱 살이었을 때, 천사 모로나이가 그에게 와서 한 고대의 기록이 그의 집 근처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했다.

1825년 -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

1825년 조시아 스톨은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조셉 스미스를 고용하여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했다. 그 곳에서 조셉은 에머 헤일을 만났고, 그들은 1827년 1월 18일 결혼하였다. 팔마이라로 다시 이사와 금판을 받고 나서 조셉과 에머는 하모니로 돌아갔고, 조셉은 몰몬경을 번역했다. 1829년 5월 15일, 근처에 있는 사스케하나 강

원문부터: 그림: 앨빈 기텐스, 조셉 스미스의 일부; 사진 촬영: 켈트 시 언더슨; 조셉 스미스 기념관 사진; 사진 촬영: 크레이그 데이몬드, 조셉 스미스 일세의 집 사진; 책: 펠로이 언더슨,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 사스케하나 강; 사진 촬영: 켈트 시 언더슨; 조셉 스미스 기념관 사진; 카탈린드 상의 사진; 사진: 켈트 시 언더슨; 돈 오 소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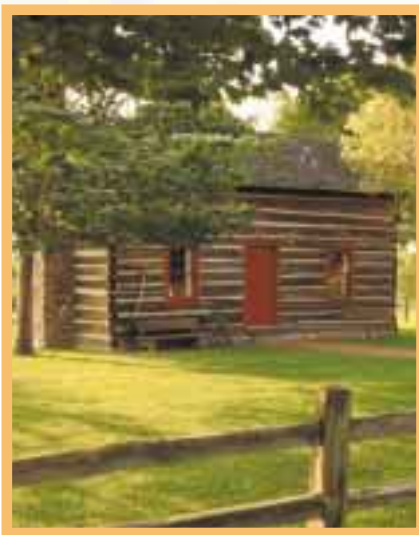
강독에서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아론 신권을 부여 받았다. 나중에 사스캐하나 강의 다른 장소에서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통하여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

1830년 - 뉴욕 주 페이엠티

1830년 4월 6일, 약 50명이 뉴욕 주 페이엠티에 있는 피터 휘트머 1세의 집에서 만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조직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교회의 장로로 지지를 받았다.

1831년 -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1831년 2월, 조셉과 그의 가족은 성도들과 함께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 이사했다. 성도들은 나중에 그 곳에 최초의 성전을 짓고 1836년 5월 이 성전을 헌납했다. 한동안 조셉과 에머는 휘트니가의 상점에서 뉴얼 케이 휘트니와 그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커틀랜드에서 성도들은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으나 결국에는 박해 때문에 떠나야만 했다.

1838년 - 미주리 주 파웨스트

조셉은 1838년 봄에 미주리로 이사했다. 파웨스트가 교회 본부가 되었다. 성전의 초석들이 놓여졌으나 성도들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폭도들에 의해 쫓겨났다.

1839년 - 일리노이 주 나부

교회는 1839년 봄 미주리 강 옆의 습지를 사들였다. 그 곳에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나부라고 이름 붙였다. 그들은 또한 성전을 지었다. 조셉은 나부 민병대를 이끌었고, 그와 에머는 한 붉은 벽돌로 지은 가게를 운영했는데 이곳에서 많은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1844년 - 일리노이 주 카테지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은 무고로 체포되어 일리노이 주 카테지의 감옥에 투옥되었다. 1844년 6월 27일, 조셉과 하이럼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한 무리의 폭도가 그들이 투옥되어 있던 감옥을 습격했다. 하이럼이 살해된 후 조셉은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는 순교 당하여 쓰러지면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지여!”라고 외쳤다. 조셉은 38세였다. 그와 그의 형은 나부에 매장되었다. ●



나이지리아의 성탄절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리니”(교리와 성약 84:77)

로리 모턴슨

글쓰기와 친구들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쓴 기사



10월 11일 월요일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아이구! 월
장로님과 월 자매님이라 해야 하는데 자주
잊어버려요!)

나이지리아가 마음에 드세요? 지도에서
나이지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엄마가 저에게 보여
주셨어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더군요!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선교 사업을 하러 가신 것이
기뻐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선교사로 봉사하겠다고 늘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베라

11월 1일 월요일

사랑하는 베라에게

그래, 나이지리아는 내가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이곳에 있어서 무척
기쁘단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척 따뜻하고
친절하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

일요일에 네 명의 어린이가 확인 의식을
받았단다. 우리는 바닥이 콘크리트로 된 아주
작은 예배당에서 모였는데 영을 아주 강하게
느꼈단다. 정말 아름다웠단다.

사랑하는

월 장로와 월 자매로부터

추신. 우리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성탄절 선물을 주고 싶구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니?

11월 22일 월요일
 월 장로님과 월 자매님.(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게 아주 멋진 성탄절 선물 아이디어가 있어요!
 저는 엄마와 초등학교 회장님과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뜻밖의 선물을 무척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할머니, 엄마가 해드린 깜짝
 생일 파티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정말
 재미있으셨어요!)
 힌트를 드릴게요. "P"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두 주내로 그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베라
 추신, 무엇인지 맞힐 수 있으시겠어요?

12월 13일 월요일

사랑하는 베라에게
 달루,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달루"는
 이그보어(나이지리아의 한 언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란다. "P"자는 pictures(그림)을 뜻하는 거지,
 그렇지?

우리 초등학교의 모든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활동시간에
 너와 네 친구들이 그들을 위해 그린 성탄절 그림들을
 마음에 들어 했단다.

네가 그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모든
 어린이들이 미소를 짓기도 하고 웃기도 했고, 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멀리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로부터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단다.

네가 보내 준
 성탄절 선물 정말
 고맙다. 완벽한
 선물이었어.(그건
 정말 멋진
 선물이었단다.)



12월 3일 금요일

사랑하는 베라에게
 그게 무엇일까? 할아버지와 나는 네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무엇을 보낼까 생각해 보는 중이다.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구나.

아프리카에는 "P"자로 시작하는 게 많이
 있단다-예를 들면 pigs(돼지), parrots(앵무새), pot-
 holes(동굴) 등등, 그렇지만 그런 것이 네가 말하는
 뜻밖의 선물일 것 같지는 않구나.

사랑하는
 월 자매로부터

사랑하는
 월장로와 월
 자매로부터
 추신, 나이지리아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뜻밖의 선물을 보내고
 싶어한단다.





저는 시대와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어린이들을 사랑합니다. 어린이들이라면 전세계 어디나 모두 꼭같죠. 어디에 있던 소중한 어린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성도의 벗, 1995년 5월호 69쪽



12월 31일 금요일
 월 장로님과 월 자매님께
 나이지리아의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보내 준 사랑
 고맙다고 말해 주세요. 우리 초등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삽화들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우리는
 특히 야자수, 부채와 바구니가 있는 삽화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랑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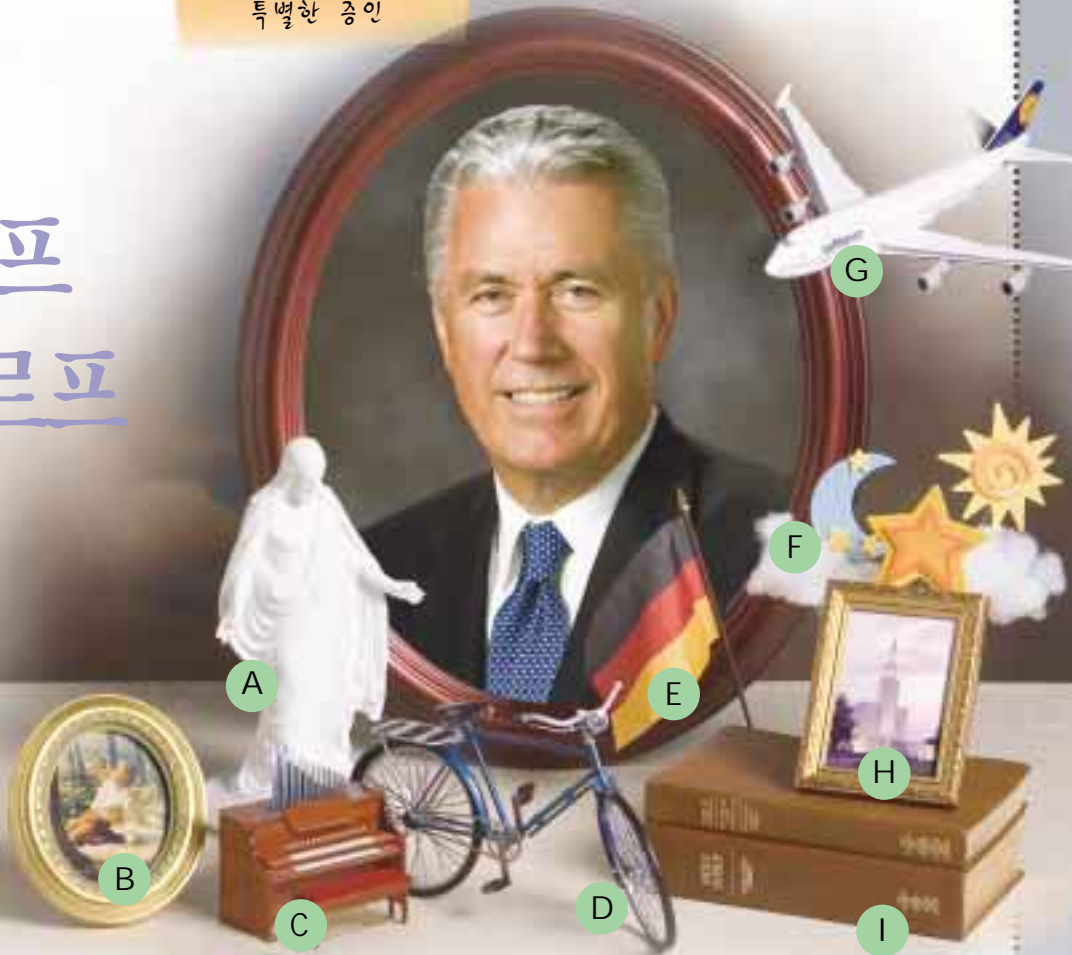
베라

추신. 여전히 보고 싶지만 우리가 나이지리아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선물을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내 드린 후로는 나이지리아가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
 로리 모턴슨은 캘리포니아 엘 도라도 스테이크
 카메론 파크 와드의 회원이다.



인물 탐구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 이사도 정원회의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알파벳 글자로 표시되어 있는 위의 삽화들과 아래의 힌트들을 짝지으세요.



- ___ 1.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이 나라에서 자라났습니다.
- ___ 2. 그는 50년만에 미국 이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처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자신이 특정한 민족을 대표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도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 완전한 분을 대표합니다.
- ___ 3. 어렸을 때에 그는 이것들 중 하나 뒤에서 빨랫감 손수레를 끌며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 ___ 4. 건물이 폭격 당한, 전쟁으로 황폐화된 도시에서 자라면서 그는 이것들로부터 읽고 배우면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구절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는 “이 말씀은 세계 위안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미래가 암담해 보였으니까요.”라고 말한다.
- ___ 5. 그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 건물에는 이 사건을 묘사하는 색유리 창문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빛날 때마다 그는 이 간증에 대해 생각했고 조셉 스미스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 ___ 6. 어린이로서 그가 제일 처음 받은 부름 중 하나는 회중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 악기에 펌프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 ___ 7. 그는 헤리엇 라이히와 결혼했고 1962년 12월 이곳에서 인봉되었습니다. 그들은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 ___ 8. 그는 35년 동안 이것들 중 하나를 조종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한 항공사의 항공 운항 수석 조종사 및 선임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 ___ 9. 비행할 때, 그는 창 밖의 이것들을 보면서 결코 싫증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문화를 지닌 다른 나라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다른 곳에 가 보고 다른 곳의 사람들과 교회를 보았기에 이 복음은, 어느 나라에서 살건 전통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친2~4쪽,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25~126쪽.

힝클리 회장의 세계 순방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7월과 8월에 세계를 여행하며 일곱 개 도시에서 회원들을 만나고 나이지리아 아바에서는 성전을 헌납했다. 이 여행으로 교회 회장으로서는 여러 곳을 방문한 그의 여행 기록에 수천 킬로미터가 더해졌다.

힝클리 회장이 회원들과 가진 모임은 공항 활주로에 모인 소규모 그룹에서 문화 행사에 참여한 수천명의 후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에서 비행기 급유를 위해 잠시 머무르는 동안 힝클리 회장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200여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힝클리 회장의 이번 방문은 교회 회장으로서는 처음이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이 훌륭한 장소에서 사업을 이룩하십시오.”라고 힝클리 회장은 그곳에 모인 회원들에게 말했다.

힝클리 회장은 그곳에 모인 회원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한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힝클리 회장

사진 촬영: 그레그 윌, Church News

50년 전 한국에서 만났던 소규모 성도들의 생각이 떠올랐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성도들 수가 이제는 수천에 이르고 있고, 장래에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게 될 것임을 믿는다고 러시아 성도들에게 말했다. 힝클리 회장은 그들이 참되고 충실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다.

한국, 서울

힝클리 회장은 한국의 서울에서 지역 대회를 위해 모인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모임은 전국으로, 또한 미국과 호주의 여러 곳으로 중계되었다.

힝클리 회장은 과거에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일을 회상했다. 그는 여행 중에 있었던 작은 사고로 인해 대회 전날 저녁에 1,500여 명의 성인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했던 문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축복을 이 백성에게 부여주셨으며, 이 나라의 안전과 평화와 복지는 이 나라의 의로움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에 따라 생활한다면 전쟁과 기타 환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타이완, 타이페이 및 중국, 홍콩

타이완의 타이페이와 중국의 홍콩을 방문하는 동안 힝클리 회장은 회원들을 만났으며, 두 도시에서 교회 사무실용 건물을 헌납했다. 두 건물에는 예배실, 공과실, 교회 사무실이 포함되어 있다.

홍콩에서 회원들과 가진 모임에서 그는 다층 복합 건물의 일부인 중국 홍콩 성전에 관해 영감을 받았던 일을 설명했다. 그는 그 형태가 뉴욕 맨해튼 성전에 다시 적용되었다고 말했다. 힝클리 회장은 또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나이지리아, 아바

힝클리 회장이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 헌납 전날인 8월 6일 나이지리아에 도착했을 때, 후기 성도들은 성전 부지까지 가는 길에 줄지어 서서 그를 맞았다. 그들은 또한 선지자의 도착과 새로운 성전의 완공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 행사인 “기쁨의 날”을 위해 공연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거의 1,500여 명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참여했으며, 그들은 거의 1년 동안 음악과 무용을 반복해서 연습하며 준비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다섯 스테이크에서 온 청소년들이 행사에

참여했다.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 부모들, 그리고 선지자를 포함하여 청중들은 프로그램을 위해 의자에 앉거나 성전 아래쪽의 비탈진 언덕에 서 있었다.

문화 행사 다음날, 힝클리 회장은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을 헌납했다. 성전은 아프리카에서 운영되는 세 번째 성전이며, 전세계적으로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121 번째 성전이다.(아래의 첨부 기사 참조)

160만 킬로미터

여행 동안에 힝클리 회장은 또한 인도의 델리,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잠시 기차

하는 동안 소규모의 회원들을 만났다. 그는 회원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행하고, 가족을 보살피고 부양하며, 가족에게 영적인 힘을 줄” 것을 당부했다.

힝클리 회장은 1995년 3월에 교회 회장이 된 이래로 수없이 많은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160만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했다. ■

Church News 기사 제공



사모아 아피아 신축 성전이 2005년 9월 4일에 헌납되었다.

회원들이 성전 헌납과 기공식을 기념하다

사모아 아피아 성전

화 재로 원래의 사모아 아피아 성전이 소실된 이후 회원들은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이년을 기다렸다. 원래의

성전이 서 있던 부지에 새로운 성전이 헌납된 2005년 9월 4일이 되어서야 그 기다림은 끝이 났다.

사모아 아피아 성전은 현재 1,486평

방미터가 넘는 면적을 갖고 있으며, 이 성전은 1983년에 지어진 과거의 성전보다 약간 큰 규모이다.

집 가까이 있는 성전에 20년간 참석했던 사모아 회원들과 인근 지역 회원들은 이년 동안 보다 멀리 떨어진 성전에 참석하며 감사함을 배웠다고 말했다. 사모아에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동안 회원들은 760킬로미터 떨어진 통가 누쿠알로파 성전에 참석해야만 했다.

“이제는 회원들이 새로운 성전이 있는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믿습니다.”라고 사모아의 교회 공보 책임자인 울레 바야올루 형제는 말했다. “회원들은 자신들의 가족 역사를 작성하기를 더욱더 열망하고 있으며 엘리야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이 2005년 8월 28일에 헌납되어, 교회에서 운영하는 122번째 성전이 되었다. 헌납되기 전에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전 일반 공개에 참석했다. 뉴포트비치 스테이크의 웨더포드 클레이튼 회장은 많은 방

문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관해 언급했다고 말했다. “저는 성전이 우리에게 더 없이 성스러운 건물이 되는 이유를 그들이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클레이큰 회장은 말했다.

77만 명 이상의 교회 회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유타 주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후기 성도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이다.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 성전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일곱 번째 성전으로 50,000여 명의 회원들이 이용하게 된다.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2005년 8월 7일에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을 헌납했다. 이 성전은 오그보르 강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성전 건축의 일환으로 교회는

강을 건너는 다리와 성전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했다.

헌납 행사 동안 힝클리 회장은 가나 아크라 성전이 2004년에 헌납된 이래로 아프리카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이 성전도 회원들에게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다호 렉스버그 성전

힝클리 회장이 아이다호 렉스버그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발표를 한 이후로 19 개월을 기다린 끝에 8,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7월 30일에 거행된 성전 기공식에 참석했다.

“회원들과 심지어는 일부 비회원들마저도 이날이 오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성전이 올라가는 것을 몹시 보고 싶어하고 있습니다.”라고 렉스버그의 교

회 회원인 파렐 영 형제는 말했다.

아이다호 렉스버그 성전은 보이시와 아이다호폴스에서 운영 중인 성전과 더불어 아이다호에서 세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아이다호의 네번째 성전이 트윈폴스에 세워질 것이라고 2004년 10월에 발표되었다. 아이다호 렉스버그 성전은 그 지역의 17개 스테이크에서 이용하게 된다. 렉스버그의 성전은 또한 브리검 영-아이다호 대학교에 다니는 12,000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게 된다. ■

세상에 복음을 듣도록 권유하는 전도용 카드

윌터 콜리, 교회 잡지

전 도용 카드가 약 10 여 년 전에 소개된 이후로 사용된 카드의 숫자와 이



사진 촬영: 그레그 힐, Church News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의 헌납식에 참석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교회는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을 돕기 위해 150만 매 이상의 전도용 카드를 인쇄했다.

를 통해 얻은 소개 수는 소리없이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8월에 교회는 150만 매의 전도용 카드를 인쇄했으며, 이는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소개하기 위해 카드를 성공적으로 사용해 왔음을 나타내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전도용 카드는 28개 언어로 교회의 모든 지역에서 구할 수 있다. 이 카드는 회원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카드를 통한 소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전도용 카드의 목적을 설명하며, 복음을 들을 것을 요청하는 “단순하고, 개인적이며, 부담스럽지 않은” 권유라고 설명했다. (“The Role of Members in

Conversion”, *Ensign*, 2003년 3월호, 55쪽) 회원들은 카드를 나누어 주며 다른 신앙을 지닌 친지들이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몰몬경이나 *Joy to the World*(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는 *Finding Faith in Christ*(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DVD와 같은 무료 자료를 받도록 권유한다. 전도용 카드에 대한 반응은 종종 선교사 소개로 이어진다.

전도용 카드에 대한 개념은 1996년에 시작되었다. 초기의 카드 형태는 명함에서 접이식 인사말 카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카드 개념이 미국에서 시험 사용되는 동안, 영국의 교회 공보 사무실은 언론 매체 캠페인을 위해 그곳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활용했다.

여러 가지로 세 가지 개념을 시험한 결과로 현재의 전도용 카드가 나오게 되었다.

전도용 카드는 포켓 사이즈로,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이다. 카드의 앞면에는 사진이 있고, 뒷면에는 전화 번호, 교회 로고, 무료 자료에 대한 소개가 들어 있다.

1997년에 최초의 전도용 카드가 소개된 이래로 약간의 변경 사항이 있었다. 지금은 모든 전도용 카드 뒷면의 교회 로고 바로 아래에 웹사이트 주소 www.mormon.org가 인쇄되어 있다. 새로운 카드의 뒷면에는 또한 교회 회원들이 권유의 글과 함께 전자 우편 주소 또는 간단한 메시지를 적을 수 있도록 빈

공간이나 빈 줄이 마련되어 있다.

지역 회장단은 전도용 카드를 세계 곳곳에서 그들 지역 나름의 필요 사항에 맞게 수정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선교사들은 선교사 토론에 맞추어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그림이 든 그림 세트를 배부한다. 선교사들은 방문을 마칠 때마다 구도자들에게 그림 하나씩을 남겨 준다. 전시할 만한 미술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들을 집에 걸어 놓고 있다. 선교사들은 또한 회원들이나 구도자들의 집에서 그림을 본 다음에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회원들이 몰몬경이나 기타 무료 자료를 원하는, 절취선이 있는 전도용 카드를 활용했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듣거나 몰몬경을 받으라고 권유한 회원들은 절취선을 따라 카드를 반으로 나누어 받은 친구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그 친구의 주소를 적어 선교사들에게 준다. 전화 서비스가 없는 지역에서 이 카드들은 무료 자료를 배부하는 데 활용되었다.

전도용 카드는 그 과정에 선교사들이 더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몰몬경이나 DVD를 선물로 주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전도용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회원들은 친구들에게 단순한 무료 자료가 아니라, 선교사들과의 접촉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다.

전도용 카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온 전화는 콜 센터 또는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의 선교부로 전해진다. 초기 전화시 또는 세 번의 확인 전화 중 어느 한 통화에서 선교사는 전도용 카드 소지자와 대화를 시작한다. 이 선교사들은 전화를 건 사람들에게 대체로 “어떤 동기로 이렇게

연락을 하시게 되었습니까?”라고 묻는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보통으로 전화를 건 사람들이 받게 될 메시지의 참됨에 대해 선교사들이 간증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

전도용 카드의 내용을 받아들여 전화를 하는 사람들은 관심과 신앙을 보이며, 부름을 받아 영으로 간증을 전하도록 성별된 선교사의 간증을 듣게 된다. 이런

과정은 회원들과 선교사들을 훨씬 더 많이 참여시키고 더 빈번한 구도자 소개로 이어진다. 전화를 건 사람의 3분의 1 이상은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무료 선물을 전해 주는 것과 메시지를 전하도록 허락한다.

전도용 카드를 얻기 위해서는 교회 배부 센터 또는 여러분 지역에 있는 전임 선교사에게 연락한다. ■

그에게 올 것이며 그가 침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에서 자신을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을 느꼈다. “저는 마음속에서 평화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홀더 형제는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 것들을 여전히 매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폐쇄된 지하철역과 런던 거리에서의 순찰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사건의 기억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

Church News, 2005년 7월 23일자에서 발췌

폭발 속에서도 의무를 다한 런던의 회원

새라 제인 워버, *Church News*

월 리엄 홀더는 영국이 2012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7월 6일 런던에서 경찰관으로서 근무하고 있었다. 런던의 거리들은 자축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경찰로서는 대혼란의 상황이었다.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홀더 형제는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다른 형태의 혼란을 다루어야 했다. 테러리스트가 런던을 공격했던 것이다.

그가 보았던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었다. 사람들이 끔찍한 충격 속에서 올드게이트 지하철 역 밖으로 달려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부상을 당했고, 가족을 찾으려 절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있던, 영국 캔터베리 스테이크 그레이브센드 워드 소속의 홀더 형제는 자신이 테러리스트의 공격 현장에 있던 최초의 비상 요원들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동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 일이었거든요.”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인간대 인간의 대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덜어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7월 7일에 런던의 지하철역 세 곳에서

계획적인 공격으로 폭탄이 터졌을 때 회원들이나 선교사들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최소한 56명이 폭발시에 사망했고, 70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수십 명은 심하게 다쳤다. 폭발은 아침 혼잡 시간 동안 50초 내에 일어났다. 네 번째 폭탄은 57분 뒤 런던의 빨간색 이층 버스에서 폭발했다.

이번 테러리스트 공격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런던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응하여 교회는 켄 리빙스턴 런던 시장과 영국 적십자사에 의해 시작된 희생자 기금을 모으기 위해 헌금하고 있다.

“그 사건을 회상할 때서야 비로소 테러에 대한 진정한 공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홀더 형제는 말했다. “그 순간에는 행해야 할 바를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침착을 유지하여 직업 의식을 발휘하고 그 일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죠.”

그 후 며칠 동안 홀더 형제는 추가 근무를 했다. 하지만 한적한 시간에 그는 수년 전 받았던 신권 축복을 기억했다. 축복에는 그가 직업에서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여 사람들이 방향을 구하러

Mormon.org을 활용하여 복음을 나눔

온 라인 교회 자료의 활용은 회원들의 친구와 친지들이 교회에 관해 알도록 돕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복음 원리를 나누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워 주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공한다.

교회의 웹사이트는 목적상으로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Lds.org와 provident-living.org는 회원들을 가르치고, 강화시키고, 온전하게 하도록 돕는다. 영어로 제공되는 Familiysearch.org는 방문자들이 자신들의 사망한 친척들을 검색하게 해준다. 23개 언어로 제공되는 Mormon.org는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추구한다. 온라인으로 복음을 나눌 때 회원들이 활용하는 주요 웹사이트가 바로 mormon.org이다.

Mormon.org는 회원들이 교회에 관한 이해에서 다양한 수준에 있는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도록 도움을 준다. 회원들이 이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친구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이 교회 교리와 생활방



Mormon.org는 23개 언어로 제공되어 전세계에서 회원들이 온라인으로 복음을 나누도록 돕고 있다.

식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2001년 10월에 시작된 이후로 830만 명 이상의 방문자들이 이 웹사이트를 찾았다. 이 방문자들은 DVD나 물문경과 같은 미디어 자료를 20만 개 이상 요청했다. 4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더 많이 알고 싶어하여 선교사들에게 소개되었다.

복음을 소개함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단순한 표현으로 작성된, 411쪽에 이르는 Mormon.org의 교리 페이지는 교회의 기본적인 믿음, 구원의 계획, 가족의 중요성, 인생의 목적을 설명한다. 각 페이지에는 해당 페이지와 관련된 주제로

이어지는 여러 개의 하이퍼링크를 갖고 있어, 방문자들에게 웹사이트를 살펴보는 수천 가지의 독특한 방법을 제시한다. 가장 많이 찾는 다섯 표제는 다음과 같다. (1) Welcome (2) Frequently asked questions (3) Find information (4) Is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 Christian church? (5) Frequently asked questions—beliefs and doctrines.

“이 웹사이트는 구도자들이 누군가와 일대일로 이야기하지 않고도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인지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회원에게 묻거나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사하면서] 이렇게 첫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Mormon.org는] 제가 진리를 찾

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안내자가 되어 왔습니다.”라고 사이트 방문자인 티파니는 말했다.

질문에 응답함

구도자들과 방문자들이 많이 찾는 곳은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 페이지이다. 과거에 찾았던 방문자들이 이 페이지에 열거된 질문들 가운데 몇몇 개를 제기했었다. Mormon.org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이 페이지에는 67개의 질문이 있었다. 그 이후로 23 개의 질문이 추가되었다. 질문들은 하이퍼링크를 통해 미디어 자료 또는 선교사 방문 요청, 믿음 및 교리, 사회적 이슈, 교회 관행, 회원 생활 방식 등과 같은 일반적인 범주로 나뉘어진다.

웹사이트 관리자들은 매주 사이트에 제출된 상위 25개의 질문을 목록으로 정리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현재 게시된 질문들에 비추어 그 질문들을 검토한다. 어떤 질문이 자주 제기되지만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질문과 대답을 웹사이트에 추가하는 것을 결정하는 총관리 직원들에게 그 질문이 제출된다.

2004년에 자주 제기되었던 상위 10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 “몰몬 신앙과 믿음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늘, 지옥, 구원, 영생에 관해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지혜의 말씀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어떤 것이 해로운가요? 카페인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음료입니까? 비카페인 음료, 핫초콜릿, 아이스티, 허브 차,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어떻습니까?” “몰몬 교회는 복수 결혼을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과거에 있었던 복수 결혼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문신, 신체 피어싱, 춤, 테이트, 금

주 등에 대한 여러분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이 사이트는 제 마음이 영을 느끼고 침례를 받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도록 도와 주는 정보를 제게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제가 개종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교회의 새로운 회원인 제이슨 형제는 말했다.

친구들에게 더 많이 듣도록 권유함

회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전자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Mormon.org는 전자 전도용 카드를 포함하여 10가지 형태의 인사말 카드를 영어로 제공한다. 카드 종류에는 영감, 감사, 생일, 위문, 특별한 행사, 가족, 명절, 유머, 성전, 침례가 있다. 각 종류 안에서 방문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역사적 인물의 선정된 인용문에 알맞은 사진을 여러 사진들 중에서 택할 수도 있고, 자신이 만든 인용문을 넣을 수도 있다.

전자 카드를 보내는 사람들은 웹사이트에 있는 거의 모든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첨부하여, 가장 관심을 일으키는 복음 주제에 관해 친구들이 더 많이 듣도록 하여 개인 특성에 맞게 소개할 수 있다. 전자 카드를 통한 소개는 보내는 사람의 전자 우편 계정에서 발송되기 때문에 사적이고 개인적이다. 작년에 방문자들은 mormon.org를 통해 196,099장의 전자 카드를 보냈다.

“저는 최근에 침례를 받았는데, ... 제 인생에서 했던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웹사이트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미국에 가족이 살고 있는데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카드를 보냈습니다. 정말 멋진 웹사이트입니다!”라고 교회의 새로운 회원인 린 자매는 말했다.

국제적인 사이트

Mormon.org의 내용은 23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이들 언어로 mormon.org는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95 퍼센트 이상을 만날 수 있다.

웹사이트를 다른 언어로 추가 번역하는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웹사이트 관리자들은 사이트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거주 도시와 국가를 정구적으로 살피고 있다. 방문자가 요청을 하거나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접속이 증가하면 그 언어로의 번역이 고려된다. 승인이 난 후에는 mormon.org에 있는 대부분의 페이지가 번역된다. 전자 인사말 카드와 무료 자료 요청 페이지의 대부분은 번역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 사이트에 있는 방문자들은 이 페이지를 영어로만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말 카드를 보낼 수는 있다. 지난해에 사이트는 11개 언어로 번역되어, 총 23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회원들을 mormon.org로 소개하는 전도용 카드는 28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전도용 카드와 회원 소개 이외에도 구글(Google), 야후(Yahoo), 엠에스엔(MSN) 등 인터넷 검색 엔진은 웹 사용자가 주요 검색어로 “Holy Bible(성경)”이나 “Book of Mormon(몰몬경)”을 사용할 때 광고 링크로 mormon.org를 보여 준다. 지난해 750,733명의 방문자들이 검색 엔진 추천 링크를 통해 mormon.org를 찾았다.

“정말 훌륭한 사이트입니다. ... 학교에서 한 친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녀는 지금 교회에 관해 공부하고 있으며, 2주 후에 침례받을 예정입니다. ... 이 탁월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웹사이트 방문자인 제니 자매는 말했다.

이해 증진을 도움

Mormon.org는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는 데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다. 칠십인 회장단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Mormon.org가 2001년에 시작되었을 때 그가 이 사이트에 기대했던 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사람들이 mormon.org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의 출처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방법으로 보기를 바랍니다.”라고 앤더슨 장로는 말했다.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기 위한 자원으로 교회 웹사이트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관한 제언이나 성공담을 cur-news@ldschurch.org으로 보내 주기를 바랍니다. ■

2004년에 Mormon.org에 접속한 국가별 방문자 수

1. 미국	1,853,865
2. 캐나다	112,849
3. 영국	110,564
4. 브라질	72,587
5. 멕시코	55,885
6. 독일	40,135
7. 프랑스	39,686
8. 호주	39,322
9. 페루	34,726
10. 일본	28,268

2005년 1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5년 1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란의 4쪽과 5쪽에 있는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를 참조한다.

1. 올해 우리는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미국 동부 지역의 대형 지도를 칠판에 붙이거나 그린다. 선지자 조셉의 생애에서 중요한 다음의 장소들을 찾아본다. 버몬트 주 샤론, 뉴욕 주 팔마이러,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 뉴욕 주 페이엣,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미주리 주 파웨스트, 일리노이 주 나부, 일리노이 주 카테지.(이것을 또한 시간 연대선을 활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번 호의 친10~11쪽에 있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중요한 장소들” 참조)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 관해 가르치기 위해 다음 그림들과 글로 적은 참고문을 준비하여 그것들을 종이 봉투에 넣는다. **봉투 1-출생:** 조셉 스미스 가족의 그림, 초등학교 그림 패킷 3-7, 조셉 스미스-역사 1:3~4,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찬송가, 6장); **봉투 2-첫번째 시현:** 복음 그림 패킷 403, 조셉 스미스-역사 1:15~20,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찬송가, 24장); **봉투 3-모로나이:** 복음 그림 패킷 404 및 406, 조셉 스미스 역사 1:29~35, 59; **봉투 4-물몬경의 번역:** 복음 그림 패킷, 416, 조셉 스미스-역사 1:61~67, “금판”(어린이 노래책, 61쪽); **봉투 5-신권:** 복음 그림 패킷 407 및 408, 조

셉 스미스-역사 1:68~72, 신권에 관한 노래 또는 찬송가 한 곡. 어린이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봉투를 하나씩 준다. 그룹이 참조 성구를 찾아서 토론하게 한다. 각 그룹에게 지도 또는 연대표 위에 그림을 붙이고, 역할 담당극을 하거나 또는 그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노래나 찬송가를 부르고,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선지자였다는 그들의 간증을 키우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게 한다.

나이가 적은 어린이들에게: 와드 또는 지부의 성인 회원 한 사람에게 선지자 조셉에 대해 설명해 주도록 한다. 지도, 그림, 노래를 활용하여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 있었던 이런 주요 사건들을 들려준다. 회복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역할에 대해 간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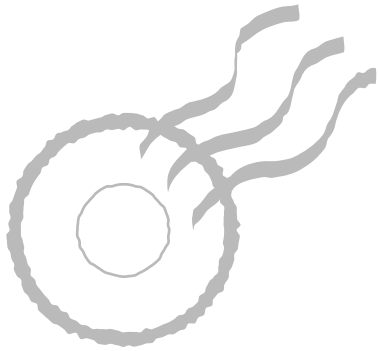
2. 우리는 주님에게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가능하다면, 어린이들이 경전 안에서 감사 또는 감사드림을 찾아보게 한다. 성구를 찾아서 함께 나눌 구절이나 간단한 이야기를 택할 시간을 어린이들에게 준다. 몇몇 대답을 받는다. 기도의 목적 중의 하나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니파이가 부친과 리아호나에 의지하여 양식을 찾은 다음 감사를 드렸던 니파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니파이전서 16:21~32 참조) 어린이들이 니파이전서 16장 32절을 찾아 읽게 한다. 여러분도 생활 방식이나 찬양의 노래로써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찬양이나 감사에 관한 수많은 찬송가 또는 초등학교 노래

의 제목을 여러 장의 종이에 적는다. 그것들을 적은 부분을 아래로 하여 칠판에 붙인다. 종이 쪽지 위에 사례 연구를 적는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너는 수학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네 옆에 앉은 사람은 항상 시험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너는 ... 함으로써 네가 구주를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 또는 “네가 정말 좋아하는 텔레비전 쇼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가족 기도를 할 시간이라고 말하셨어. 너는 ... 함으로써 주님에게 감사를 나타낼 수 있어.”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65~166쪽 참조) 사례 연구를 바구니 속에 넣고, 여러분이 감사에 관한 노래를 부를 때 바구니를 돌린다. 음악을 멈추고, 한 어린이에게 바구니에서 종이 하나를 택하고, 그 사례 연구를 읽고 질문에 답하게 한다. 그런 다음 어린이들이 칠판에 있는 종이를 가운데 하나를 떼어 내거나 한 어린이가 선택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노래를 부른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반복한다. 주님에게 여러분의 감사를 나타내고, 또한 어린이들이 구주를 기억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

지난 여름, 푸른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을 닦으며 한국 교회의 신 번째 해를 함께했던 외국인 방문자들은 한국과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할까. 지역 회장단 사무실로 배달된 한 통의 편지는 그 외국인 방문자 중 하나였던 사이몬즈 자매와 우리 사이의 인연을 담고 있다.



존경하는 고원용 장로님,

제 남편과 저는 이달 초 대한민국 서울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한국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헌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참으로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그 중 7월 30일 저녁에 열렸던 문화의 밤은 참으로 압권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쁘게 관전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답고 고무적이며 영감에 찬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노고에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모로 보나 품위있고 전문적인 행사였다고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기념 행사에서부터 화려한 의상까지 간과된 부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저에게 첫 번째 한국 여행이었습니다. 아버지이신 스펜서 틀러 형제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 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했던 경험에 대해 강한 애착을 지니셔서 집에서 그 때 일을 자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한국 공예품과 기념품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밤을 할 때 선교사 시절 사진을 보여주셨고, 만났던 사람들의 음성이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 주셨습

니다. 어머니는 저와 제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와 진정 사랑에 빠진 것은 아버지께서 한국 민요인 아리랑을 불렀을 때라고 하십니다.

저는 학교에 다닐 때 어떤 국가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할 때마다 한국을 택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와 그 언어, 음식,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어릴 때부터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조상이 스위스와 영국, 이탈리아계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약간 한국인처럼 생겼

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 아버지가 2년 반 동안 김치를 많이 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해 줍니다.

나중에 제 남편이 될 카일 사이몬즈 형제가 1986년 서울서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기뻐 하셨습니다. 그 둘은 서로 한국어로 대화하며 그곳에서 지냈던 날들을 회상하곤 합니다. 사이몬즈 형제와 결혼한 후 17년 동안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과 선교 사업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남편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녀들과 와드 청소년들에게 한국에

대한 그의 애정과 훌륭한 한국인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올 여름에 열린 대규모 기념 행사와 귀환 선교사 모임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을 직접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기쁜 한 주 동안 장로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 커다란 축복이라 느낍니다. 특히 한국에서 수년 전 봉사하셨던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제게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이 멋진 여행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밤 및 한국 지역 대회가 모든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도록 준비해 주신 모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획과 준비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에서 우러난 저희의 감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감사를 담아,
앤지 틀러 사이몬즈



한국을 방문한 사이몬즈 자매 가족. 왼쪽에서 두 번째가 편지를 쓴 사이몬즈 자매다. 맨 왼쪽에 있는 사이몬즈 형제와 맨 오른쪽에 있는 틀러 형제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2005년 하반기 한국 지역 스테이크 대회 세계 최초 현지 위성 중계



설날에 올았던 까지 소리가 하늘에도 들렸을 듯하다. 지난 여름에 한국을 방문했던 제일 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회장에 이어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2005년 10월 30일, 한국 지역 하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했다. 한국 교회의 시발점인 부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위성을 타고 전국 22개 집회소에 모인 만여명 회원들과 함께했다.

대 회 날 아침, 연단 앞에 가득히 피어난 꽃 너머로 한국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신권 지도자들의 밝은 얼굴이 성도들을 반겼다. 감리자인 넬슨 장로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에번즈 장로 부부, 제2보좌 고원용 장로 부부, 부산 스테이크 양기욱 회장, 서울 서 선교부 링우드 회장 부부, 한국 선교사 훈련원 홍무광 원장 등이 자리를 나란히 했다.

축복과 감사와 권고의 말씀들이 대회장을 가득 채우면서 회원들의 눈과 귀는 점점 연단을 중심으로 모였다. 넬슨 장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며 “나라의 보물”인 자녀를 복음 안에서 충실히 양육할 것을 권고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 모두는 그 내부에 신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세상의 구주로 알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임을 알려 주십시오. ... 구주의 생애를 이해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로서 가졌던 사명을 가르치십시오... 경전의 축복을 이해하도록 가르치십시오. ... 자녀들이 성전에 참여하는데 합당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성전 의식이 교회에서 주는 가장 큰 축복임을 알도록 가르치십시오. ... 젊은이들이 선



위: 통역을 맡았던 로버트 할리 형제와 한국 관리 본부 번역사 김갑수 형제, 아래: 연단에 꽃을 장식하는 연산 와드 최희숙 자매.



이 날 모임은 위성으로 전국 22개 집회소에 중계되었다.



개회 찬송을 부르는 회원들.

교사로 봉사하기를 권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친절하게 대하고 꼭 껴안아 주시고 여러분에 대해 자녀들이 갖고 있는 사랑을 느끼십시오. ...

자녀들에게 십일조의 축복을 가르치십시오. ...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십시오. ... 자녀들이 교육을 받도록 가르치십시오. ... 한국의 아름다운 자녀들. 이 국보들을 공경하고 가르치십시오. ...”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조차 최초로 현지 위성 중계된 이번 대회는 여러 형제, 자매들의 수고로 무사히 치뤄졌다. 2년에 한 차례는 제일 회장단이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본부에서 하는 말씀을 위성 방송으로 함께 듣는 합동 스테이크 대회를 하겠다는 교회 정책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모임이 있었다. 이번 한국 스테이크 대회가 다른 대회와 다른 점은 현지에서 모임을 하고 그것을 전국에 생중계한 것이다. 위성 방송 기술 덕에 전국 17개 스테이크와 5개 지방부에서 한국 전역 회원들이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연사의 말씀을 함께 보고 느꼈다. 이를 돕기 위해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본부에서 위성 방송 관련 기술진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지도자들과 회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교회 통역사들과 회원들의 자원 봉사로 매꿔졌다.

한편, 회원들이 앉아서 가슴에, 공책에 연사들의 말씀을 새기는 동안 대회장 한 켠에서 10명 형제, 자매들이

선재로 이 모두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날 장내 정리를 맡은 안내자들이었다. 그 중 한 명이었던 금정 와드 전석우 형제는 “처음엔 고3이란 압박감에 안내자 역할을 망설였지만 그래도 특별한 모임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 마음으로 수행했습니다. 좀 더 영적인 느낌을 많이 받고 넬슨 장로님을 가까이서 뵈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라며 즐거워했다.

대회의 감동은 한국 전역에서 똑같았다. 청주 스테이크 상당 와드 강명옥 자매는 “넬슨 장로님이 직접 감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곁에 지도자들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어요.”라며 기쁜 마음을 표현했고,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에서 합창을 준비한 화양 와드 양정휴 형제는 이번 대회가 연차 대회처럼 느껴졌다고 “뜻 깊은 자리에서 노래로 주님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민병숙 기자, 장효정 기자, 전건우 기자)



넬슨 장로와 함께한 특별 모임

2005년 10월 30일 오후 다섯 시,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 대학 극장에서 넬슨 장로와 함께한 특별 모임이 열렸다. 부산, 대구, 마산 등 경상남북도 전 지역에서 사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원과 선교사들, 구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 자리에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에번즈 장로 부부와 제2보좌 고원용 장로 부부, 서울 서 선교부 링우드 회장 부부가 함께했다. 넬슨 장로는 회중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말씀과 간증을 전했고, “모든 가정에 경전이, 성전 사진이, 찬송가가, 리아호나가 있다면 모든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라며 축복을 약속했다. 부산 지역 회원들은 석 달 전부터 준비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합창곡을 선사해서 모임에 빛을 더했다. 선교사 훈련원 입소를 열흘 앞두고 합창을 한 광안 와이드 이의환 형제는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기쁨은 그 어떤 휴식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 합창이 제 영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저를 보다 더 잘 준비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며 그 간의 수고를 감사로 돌렸다.(전건우 기자)

아름다운 사람들

군인 박종진 형제

젊은 사병이었던 박종진 형제는 장교가 되고 싶었다. 시험에 합격하고 꿈을 이루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박 형제의 소망을 버리게 했다. 계속되는 훈련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다. 제대 후 고향인 대구에 내려 온 박 형제는 지역 향토 방위 훈련을 지휘하는 군무 사무관으로 다시 군복을 입었고, 서른 해에 가까도록 그는 군인이다.

대구 근처 군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영천에 지부가 생기고, 중리 와드가 조직되고, 대구에 스테이크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박종진 형제는 지부 회장, 감독, 스테이크장단으로 봉사하며 항상 고향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 있었다. 거의 모든 모임에서 합창을 해 온 박 형제는 5년 전부터 ‘대구 남성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 음악은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악 전문가들이 대부분인 합창단에 들어가 교회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 동기였다. 스테이크 회장단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소망대로 스테이크 합창단을 지휘하며 아내와 고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노래를 하고 있다.

전차 부대에서 복무할 때, 끝까지 담배 피우기를 거부하겠다고 상사가 얼굴에 들이던 대검을 보며, 신앙 때문이라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새벽까지 대

검 앞에서 버텼다는 박 형제 이야기가 군부대 전체에 퍼져서 그 후로는 어느 누구도 그의 표준을 책잡지 못했다. 탱크 위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절이 오히려 가장 큰 힘이 되었다며 생각에 잠기던 박 형제. 지금은 동료들 중 반 정도가 커피를 자제하고 있고, 예비군을 교육할 때는 서론에서 항상 가족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며 밝게 웃는다. 그 어느 것보다도 가족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이라며 간증하는 박 형제의 얼굴에서 정직한 감사함을 읽을 수 있다.



힐라맨의 용사들처럼

인천 스테이크 청소년들이 5,000여 명 조상들에게 침례를 베풀다

올 해 여름, 모든 이들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던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 이를 백 배 더 행복하게 보낸 인천 스테이크 60여 명 청년, 청년들은 성전에 모여 5,233명 조상들에게 대리 침례를 베풀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문화의 밤 공연에 참여하지 못한 인천 지역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 절기를 축하하고, 성전 사업을 통해 개개인의 간증을 강화하여 선교 사업과 성전 결혼을 준비한다는 목적 아래, 지난 1월부터 대리 침례 5,000명이란 목표를 가지고 성전에 모인 것이다. 이는 50주년 행사 약 일주일 전인 7월 23일에 모두 완료되었다. 지도자들은 7개월 동안 한 데 모였던 아름다운 마음들을 간증집으로 엮었는데 청소년들의 이야기에서 침례복처럼 순결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국 교회 50주년을 맞은 것은 큰 축복이다. 이 날에 단순한 방문자이기보다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고 싶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성전에 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포기하고 기꺼이 주님의 집을 방문했다. 침례는 마치 생일과 같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차례를 위해서 손뎌며 기다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다. 나는 주님의 방법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할 수 있어 주님께 감사 드린다.

대리 침례를 준비할 때 올바른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대표하는 훌륭한 자매가 되기 위해 평소에도 표준 복장을 지키면서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그 마음이 가슴에 잔잔히 남아있다. 이제 곧 오실 고든 비 힝클리 선지자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부평 와드 길의진 자매)

“2005년 7월 23일”

이번에 대리 침례가 있다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꼭 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저번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5,000명 중 마지막 250명이라고 하셔서 나에겐 뜻깊은 경험이 될 것 같았다. 금식도 하고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다. 티코에 일곱 명이 타고 성전에 오면서 도로 한 가운데 차가 멈추는 등 여러 황당한 사고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성전에 도착했다. 침례를 받는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이 뛰고 뜨거우며 전기가 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난 이것이 내가 대리로 침례를 받아드리는 분들의 느낌과 “침례를 받아 주어서 고맙다...”라는 인사라는 것을 안다. 난 이 교회가 이 지상에 하나 밖에 없는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안다. (계산 와드 정준우 형제)

“모두 한 마음으로 너도나도 참여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길영권 인천 스테이크 회장은 의로운 목표를 위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모였던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자랑스럽다. 갑옷과 투구를 입고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힐라맨의 용사들처럼, 새하얀 침례복을 입고 성전에서 기쁨과 간증을 얻은 100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의 삶에 즐거운 승리가 계속되길 소망한다. (조현아 기자)



청계천에 닿은 도움의 손길

10월 22일 토요일, 서울 청계천에 200여 명 성도들이 모였다. 서울 경기 지역 형제, 자매들은 이 날 두 손이 맞잡은 모양이 새겨진 조끼를 입고 “도움의 손길” 봉사 활동을 했다. 회원들은 서울 시내 중심부를 흐르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두 시간여 동안 주변 쓰레기를 치웠다. 평소 산책하는 시민들로 붐비는 청계천에서 회원들이 도움의 손길 활동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조끼 뒷면에 쓰인 교회 명칭의 뜻을 물어왔고, 회원들의 표정과 행동이 그대로 교회의 얼굴이 되었다. 공보 위원회 위원장 최석구 형제는 “예

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도움의 손길’ 프로그램은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라며 봉사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을 격려했다. (판스워드 자매 기사 제공)



가족 가치관상 시상식

지난 10월 30일,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에서 제1회 가족 가치관 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 상은 올바른 가족 가치관 정립을 위해 힘쓴 지역 사회인들에게 교회에서 수여하는 것으로, 첫 번째 수상자는 이근호 박사와 이동원 박사였다. 정신의학자 이근호 박사와 사회학자 이동원 박사는 부부로서 함께 가족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10여 년 동안 지역민과 공공 기관들을 방문하여 건전한 가족 문화에 대해 교육하고 여러 연구를 지원해 왔다. 또한 4대가 같은 집에 살며 가족 사랑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근호 박사는 “가족 아카데미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저희보다 더 심도 있게, 전세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가족 가치관을 접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다. 이 날 이근호 박사와 이동원 박사는 상패와 가족 선언문, 그리고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는 모습을 표현한 도자기를 받았다. 한국 공보 위원회에서는 매년 이들 수상자들과 같이 사회에서 가족

가치관을 알리는 사람들에게 이 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판스워드 자매 기사 제공)



민혜기 장로에게서 상을 받는 수상자들. 맨 왼쪽이 이근호 박사, 그 옆이 이동원 박사.

리아호나 구독 증진 프로그램



살아 계신 선지자의 귀중한 메시지를 담은 리아호나를 아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이와 리아호나를 나누기 위해 구독 증진 프로그램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현재 구독이 끝나지 않았지만 만료 기간을 2006년 12월로 조정한 후 1년을 연장하신 분(원래 만료 기간이 2005년 12월인 경우, 1년 구독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년 이상 구독을 신청하신 분, 증정용 리아호나를 1부 이상 신청하신 분에게는,

1.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저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2. 마조리 페이 힝클리 자매의 저서 “작고 단순한 것들”

두 권의 책을 각각 회원가 5,000원 대신 3,000원에 드립니다.

신청 문의: 한국 관리 본부 2232-1441(내선 번호 541)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각 와드, 지부로 발송될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나온 출판물

복음 참고서 “신앙에 충실함”

가나다 순으로 엮인 복음 주제들을 배경 지식과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풀이한 책. 제일 회장단은 이 책 첫 장에 “청소년, 독신 성인, 그리고 새로운 개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냈으며, “정규적으로 기도하고 경전과 복음 교리를 연구하는 것은 ... 악한 영향력에 맞서는 준비가 된다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가격: 1,000원

DVD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도마의 이야기를 따라 재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기적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한국어 번역판.

가격: 5,000원

구입처: 성전 가먼트 센터(직접 판매), 배부센터(우편 판매)

힝클리 회장 부부가 보내는 작고 단순한 크리스마스 선물

성탄절기에 이웃과 가족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책 두 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STAND A LITTLE TALLER 한국어 판)

저자: 고든 비 힝클리



1월부터 12월까지 매일 매일 우리 삶을 가꿔 줄만한 주제와 경전 구절, 힝클리 회장의 짧고 힘있는 말씀을 엮은 책. 손바닥만한 종이에 적힌 365개 글들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줄 고리가 될 것이다.

“작고 단순한 것들” (SMALL AND SIMPLE THINGS 한국어 판)

저자: 마조리 페이 힝클리



싱그러운 자연을 담은 사진과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포착한 힝클리 자매의 짧은 이야기들을 모았다. 허리를 숙여 작은 행복을 들여다보게 하는 힘을 지닌 책.

* 더 자세한 사항은 공보 위원회의 공문과 포스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 위원회 02-2232-1441(내선 번호:363)]

새로 부름받은 복지 선교사



지난 11월 1일, 김용일 장로와 박재향 자매가 새로운 복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이 두 선교사는 현재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에 참석하면서 김 장로는 스테이크 축복사로, 박재향 자매는 유아반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부산 동구 지부에서 개종하여 동구 지부 지부장과 서울 스테이크 회장을 역임했던 김 장로는 “모든 회원은 영적으로나 현재적으로나 자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2년 동안 복지 선교사로써 회원들을 도울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김용일 장로와 박재향 자매가 새로운 복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이 두 선교사는 현재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에 참석하면서 김 장로는 스테이크 축복사로, 박재향 자매는 유아반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부산 동구 지부에서 개종하여 동구 지부 지부장과 서울 스테이크 회장을 역임했던 김 장로는 “모든 회원은 영적으로나 현재적으로나 자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2년 동안 복지 선교사로써 회원들을 도울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장은정 자매
순천 지방부
순천 지부
서울 서 선교부



최한나 자매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서울 서 선교부



장한나 자매
아보초포드 스테이크
칠리 웨 와드
대전 선교부



박정매 자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템플 스퀘어 선교부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277기(13명)



김강석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대전 선교부



신세계 장로
수원 스테이크
평택 와드
부산 선교부



노명찬 장로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대전 선교부



조재웅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오륜 와드
부산 선교부



박라헬 자매
안양 스테이크
산본 와드
부산 선교부



이범열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대전 선교부



설미진 자매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서울 선교부



이왕룡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대전 선교부



신선영 자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중랑 와드
부산 선교부



이의환 장로
부산 스테이크
광안 와드
대전 선교부

지역 단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 참조

- 부산 서 지방부
청소년 표준의 밤 (9월 24일)
- 부산 스테이크
체육 대회 (10월 3일)
- 안양 스테이크
독신 합동 성찬식 (10월 21일)
독신 체육 대회 (10월 15일)
-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체육 대회 (10월 3일)
청소년 표준의 밤 (10월 22일)
상호부조회 “가을맞이 여성 대회” (11월 5일)
- 수원 스테이크
스테이크 체육 대회 “행복한 사람들의 활동의 날”
(10월 3일)
- 전주 스테이크
중앙 와드 선교사 훈련 수료식 (10월 23일)
중앙 와드 대회 “가장 아름다운 3일”
(9월 30일~10월 2일)
- 대전 스테이크
허광희 형제 선행이 조선 일보에 실리다
에번즈 장로와 함께하는 특별 모임 (10월 1일)
- 서울, 경기, 대전, 광주 지역 독신 성인 활동 모임
“깊어가는 가을의 사랑이야기” (10월 22일)
- BYU 238 와드 승격, 해외 두 번째 한인 와드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감독: 김덕호(전임: 정재원)